

# 樂章集研究

車柱環\*

## 1. 前言

北宋(960—1126)初期의 詞는, 五代 詞風의 惣性이 가시지 않아 이렇다할 특징을 보여주지 못했다. 宋太祖(R. 960—976)와 太宗(R. 976—997)은 才略이 있어 두 代에 걸쳐 混亂했던 局面을 대체로 수습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받은 真宗(R. 997—1022) 때부터는 安定된 基盤 위에서 繁榮으로 향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 代인 仁宗朝(1022—1063)에 이르러서는, 다소의 問題는 內包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太平을 누리게 되었다. 仁宗朝의 繁榮과 太平을 背景으로 하여 文學 各分野에도 새로운 機運을 맞이하게 되었다. 詞文學도 이 시기에 와서야 生氣를 얻어 宋詞의 特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詞文學에 새로운 作風을 일으킨 대표적인 作家가 柳永(約990—1050)이다. 柳永과 같은 시기의 重鎮 詞作家로는 晏殊(991—1055), 歐陽修(1007—1072), 張先(990—1078) 셋을 들 수 있다. 晏殊는 舊來의 詞風을 踏襲하였고 歐陽修는 新舊詞風을 兼採하였고 張先是 새로운 詞風을 全幅的으로 발휘하였으면서도 長壽했던 탓으로, 柳永의 詞風을 忌避하여 獨特한 作風을 개발한 다음 時期의 詞作家 蘇軾(1036—1101)에 連結되는一面을 나타냈다<sup>(1)</sup>

柳永은 文才가 뛰어난데다 音樂에 대한 理解가 깊고 거기다 歌舞音曲과 醇酒婦人을 좋아하였다. 그러한 그가 繁榮과 太平을 누리는 都市의

\* 서울大學校 教授 (中文學 專攻)

(1)拙文 東坡詞研究(震檀學報 第35號) 參照.

奢侈와 享樂을 追求하는 氣風에 휩쓸려 艷色에 耽溺하는 가운데서 그의 詞가 製作되어 나왔던 것이다. 당시 일반 사람들이 새로운 樂曲을 要求하는 風潮에 따라 教坊을 중심으로 한 聲妓들은 新曲을 내기에 힘썼는데 그 歌詞가 樂曲에 잘 어울려야 歡迎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러한 樂曲에 잘 어울리는 歌詞의 製作者로는 柳永 같은 사람이 가장 適合했다. 이러한 時代 風潮에 따라 柳永은 우선 新曲의 作詞者로서 그 存在가 뚜렷해지게 되었다. 일반에 환영되는 樂曲에 잘 어울리는 歌詞를 製作하는데 있어서는 첫째로 歌詞가 樂曲의 高低長短의 節奏에 거슬리지 않아 歌唱하는데 順通하여 無理가 없어야 했고, 그 內容이 당시 일반 사람들의 관심거리인 妓女의 治容嬌態, 男女의 悲歡離合, 酒樓狹邪의 頽廢歡宴 등등의 태두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아야 했고, 用語에 있어서는 淫褻 함조차 꺼리지 않는 俗語를 大幅的으로 運用해야 했다. 柳永은 그러한 條件을 充足시키는데 前例 없는 才性과 技倆을 발휘할 수 있어 큰 歡迎을 받았다. 또 당시의 新曲은 長篇의 것이 많아 歌詞를 채워 넣기가 容易하지 않았는데 柳永은 그 일을 잘 해내서 특히 慢詞製作의 能手로 指目되게 되었다. 柳永 이전에는 長調의 詞는 별로 많지 않았다. 한편 柳永은 教坊에서 上演하는 皇帝와 그 주변을 頌祝 讀美하는 樂舞에 사용되는 樂曲의 歌詞도 적지 아니 製作하게 되었다. 그리고 官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貧窮이나 老衰로 落魄해가는 자신의 憂愁와 困苦를 詞를 통해 나타내기도 했다.

青年時節부터 시작하여 老年期에 까지 詞作을 계속하였으므로 柳永이 지어낸 詞作品은 그 分量이 대단했을 것이나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200餘首에 지나지 않는다. 柳永의 詞는 그가 生存할 때에 이미 教坊에서 樂曲의 歌詞라는 상태로 記錄되어 柳永詞가 保存되는 한가지 系統을 이루었다. 그리고 柳永의 詞는 일반에 널리 愛唱되었고 그 詞風이 새로웠기 때문에 宋代부터 이미 그의 詞集이 刊行되어 일반에 通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宋本 柳永詞集은 몇가지가 전해져明清에 걸쳐 參考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염어 볼 수 없게 되었다. 지금 전해지는 柳永의 詞集은 樂章集 3卷으로, 弊村叢書에 收錄된 朱孝臧(又名 祖謀, 1857—1921)의 校本을 가장 잘 整理된 것으로 들 수 있다. 그밖에 宋六十名家詞에 收錄된 樂章集이 있고 欽定詞譜와 詞律에도 柳永詞의 대부분이 引用되어 있다. 이러한 몇가지 범위에서 柳永詞의 면모를 알아보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편 教坊 記錄으로 保存된 柳永詞는 그 極少部分이 우리 高麗史 樂志(이하 麗志로 略稱함)의 唐樂歌詞로 전해질 뿐이다. 麗志 唐樂에 들어 있는 柳永詞는 본래부터 作者名이 밝혀져 있지 않았으나 그 동안의 調查 研究를 통해 몇가지가 究明 되게 되었다. 麗志에는 樂章集에 들어 있지 않은 柳永詞가 있는 것으로 推測되나 지금으로서는 그런것을 確定지을 수가 없다.

宋代의 詞文學을 研究하는데 있어서는 柳永詞는 반드시 살펴보아야하고 또 우리 唐樂과의 관계가 있어 柳永詞 전체를 考察할 意義가 더욱切實하다. 그래서 宋詞研究의 一環으로 여기서 柳永詞를 研究하여 보기로 한 것이다. 먼저 柳永의 生平에 따른 事項을 檢討하고, 樂章集에 관한 諸問題를 討究하고나서 樂章集에 전해지는 作品을 통해 柳永詞의 性格 내지 特徵을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 2. 柳永의 生涯와 詞作

柳永의 傳記는 宋史에는 보이지 않고 諸家의 雜錄에 詞作과 關聯된 그에 관한 遺聞과 逸事が 전해질 때름이다. 柳永의 字는 薈卿, 初名은 三變 字는 景莊, 崇安人이다. 그가 名字를 改作한 사연은 뒤에 言及하게 된다. 崇安은 北宋 때의 縣名으로 지금의 福建省 建陽縣 北部에 있는 武夷山 東北麓의 땅이다. 그의 두 兄 三復 三接과 함께 글잘하는 것으로 이름이 나서 柳氏 三絕로 불리웠다는 일 이외에는 그의 家庭事項

에 관해 알려지는 것이 없다. 古今詞話에 따르면 柳永은 少時에 眞州에서 글공부를 했다. 北宋 때의 眞州는 지금의 江蘇省 儀徵縣으로 繁華한 都市 揚州(同省 江都縣)와 떨지 않은 곳이다. 그때 柳永이 無名氏의 作이라 하고 眉峯碧詞을 壁에다 썼다는 것이다. 眉峯碧은 卜算子의 別稱으로 첫句 “蹙破眉峯碧”의 세 글자를 땀 것이다. 이 眉峯碧詞는 樂章集에는 들어 있지 않다. 南宋 때의 文人 王明清(約 1127—1200)의 玉照新志에 다음과 같은 無名氏의 眉峯碧詞가 실려 있다.

## 眉 峰 碧

無名氏

蹙破眉峯碧。纖手還重執。鎮日相看未足時，便忍使、鴛鴦隻。薄暮投村驛。風雨愁通夕。窗外芭蕉窗裏人，分明葉上心頭滴。  
〔。韻；，句；、讀。〕

눈썹 봉우리 싱싱한 것 찌프려 망가뜨리고 있는데  
보드라운 손을 그대로 포개 잡고 있다  
종일 보아도 모자라는 이 떼에  
그레 원앙을 외톨로 만들고 배겨낸다는 건가  
  
저 물녘에 춘驛舎에 들어  
비 바람에 시름으로 밤새우니  
창 밖의 파초 창 안의 사람  
뚜렷하게 일 위와 마음 속에 물방울 떨어진다

이 眉峯碧詞가 과연 柳永이 少年時節에 지은 것인지는 확인해 볼 길이 없다. 다만 나타난 情調는 그의 詞風을 聯想하게 한다. 柳永은 眉峯碧詞를 짓고난 후에 詞를 짓는 法을 깨달았다고 한다. 어떤 妓女가 그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柳永이 “나는 (詞를 짓는데 있어) 그런 詞法에서는 그래도 꽤 여러 모로 변화했다”<sup>(2)</sup>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후 柳永은 科舉에 應試해서 立身揚名할 목적으로 당시의 首都였던 汴京(지금의 河南省 開封縣)으로 갔다. 汴京은 五代 이래의 都邑地여서 이미 豪奢했던데다가北宋 仁宗 때에 와서 繁榮이 絶頂을 향해 치닫는

(2) 某於此，亦頗變化多方也。

판국에 直面해서 侈麗와 歡樂을 追求하는 風潮가 澩滿해 있었다. 汴京에 온 柳永은 一個 槩子의 身分으로 있었으나 당시 歡樂을 追求하는 氣風에 휩쓸려 狹邪에 出入하며 醇酒와 婦人 속에서 歌舞宴樂에 耽溺하는 生活을 했다. 그의 詞作品 가운데는 이 時期의 그의 生活이 反映된 것 이 꽤 많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두기로 한다.

### 玉蝴蝶 其三<sup>(3)</sup>

是處小街斜巷，爛遊花館，連醉瑤卮。選得芳容端麗，冠絕吳姬。絳脣輕、笑歌盡雅，蓮步穩、舉措皆奇。出屏樟。倚風情態，約素腰肢。當時。綺羅叢裏，知名雖久，識面何遲。見了千花萬柳，比並不如伊。未同歡、寸心暗許，欲話別、纖手重攜。結前期。美人才子，合是相知。

이곳 작은 거리 환락가  
 화려한 요정에서 느려지게 놀고  
 瑤玉 잔에 계속 취한다  
 꽃다운 얼굴 단정하고 고운 이 얻었는데  
 으뜸가는 吳 땅의 美姬  
 붉은 입술 가볍지 웃고 노래하고 하는 것 남김없이 우아하다  
 연꽃 결음 차분하고 거동 모두 기묘하다  
 가리운 휘장밖에 나서서  
 바람을 쏘이는 자태  
 꾸밈없는 허리와 풀다리

그때는  
 미녀들 두리 속에서  
 이름을 안지는 오래되었어도  
 얼굴 알게 된 것은 꽤도 늦었다  
 천가지 꽃 만가지 벼들 보았지마는  
 견주어 보니 그녀만은 다 못하다  
 즐거움 함께하기도 전에 마음속으론 몰래 허락하였고  
 하여지는 말 하려고 보드라운 손 포개 잡고  
 앞날의 기약 맺는다

(3) 樂章集 下 仙呂譜에 들어 있다.

美人과 才子는  
서로 알아야 마땅하다

### 洞仙歌<sup>(4)</sup>

佳景留心慣。況少年彼此，風情非淺。有笙歌巷陌，綺羅庭院。傾城巧笑如花面。  
恣雅態、明眸同美盼。同心綰。算國豔仙材，翻恨相逢晚。 繾繾。洞房悄悄，繡被重重，夜永歡餘，共有海約山盟，記得翠雲偷翦。和鳴彩鳳于飛燕。閒柳徑花陰攜手徧。情眷戀。向其閒，密約輕憐事何限。忍聚散。況已結、深深願。願人間天上，暮雲朝雨長相見。

아름다운 경치에 마음 돌리기 습관되어 있는데  
하물며 젊은 나이라 피차에  
風情이 대단하다  
생황에 맞춰 노래 울려나는 골목길 있어  
미녀들 그득한 정원에서  
傾城의 귀여운 웃음 띠우는 꽃같은 얼굴  
우아한 자태 마음껏 드러내고 밝은 눈 아름다운 눈동자 돌려온다  
같은 마음 얹어 매었으니  
國色과 신선같은 재자인 셈이라  
도리어 만난 게 늦은 것을 원망한다

애정에 얹혀 떨어지지 못하나니  
洞房 고요하고  
수 이불 포개진데  
밤 길어 즐거움 그지없어  
함께 바다와 산 두고 사랑의 맹세하였고  
싱싱한 머리 몰래 잘랐다  
맞춰 우는 채색 봉황과 날아다니는 채비인양  
비둘길 꽃 그늘 뚫고 손잡고 두루 다녔다  
사랑스러워 그리워 하거니와  
그렇게 하는 동안에  
몰래 약속하고 가볍게 사랑하고 한 일 어찌 한정 있었겠는가  
참아 모였다 헤어지겠나

(4) 樂章集 中 中呂調에 들어 있다.

하물며 이미 깊어 깊은 소원을 세웠는데  
원하기를 인간에서와 천상에서  
저녁녘 구름과 아침결 비 같이 노상 서로 보고 있게 되자고

柳永은 이때 이디 新曲의 歌詞를 지어내는 名手로 알려져 일반 사람들이 그가 지은 歌詞를 愛唱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의 皇帝까지도 歌詞作家로서의 그를 잘 알고 있었을 정도였다. 仁宗皇帝가 외우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이 時期에 그가 지은 鶴冲天을 例로 들어두기로 한다.

### 鶴沖天<sup>(5)</sup>

黃金榜上。偶失龍頭望。明代暫遺賢，如何向。未遂風雲便，爭不恣狂蕩。何須論得喪。才子詞人，自是白衣卿相。 煙花巷陌，依約丹青屏障。幸有意中人，堪尋訪。且恁儂紅翠，風流事、平生暢。青春都一餉。忍把浮名，換了淺斟低唱。

황금의 과거방 위에  
우연히 狀元 자리 잃었다  
明君의 代에 잠시 賢者를 버린 거라 어떻게 향해 가리오  
이룩하지 못한 風雲 쪽으로야  
어찌 멋대로 미쳐 놀아대지 않으랴  
得失을 따져서 무엇하나  
才子 詞人은  
본래白衣의 卿相인데

妓女의 골목길  
아련한 丹青의 담장  
다행히 다음 속의 사람 있어서  
찾아가 불만하다  
잠시 이렇게 女人과 가까이 하여  
風流스런 일 짚었을 때 시원하게 하는 거라  
靑春이란 도시 잠시 동안이라  
꼭 참고 헛된 명예일 랑

(5) 樂章集 下 黃鐘宮에 들어 있다. 後段 第5句 “翠”字 위에 詞譜本에는 “倚”字가 있다.

술맛이나 보며 나직이 노래나 부르는 즐거움과 바꿔버리는 거라

이 鶴沖天詞에서도 익살기를 섞어서 自述하고 있지만 柳永은 여례 차례 進士試에서 落榜의 苦杯를 마셨다. 南宋의 吳曾이 著述한 能改齋漫錄의記事에 따르면 한번은 柳永이 進士試에 及第했었는데 榜을 내붙이기 直前에 仁宗에 의해 그의 이름이 榜에서 除去되었다. 때마침 仁宗이 당시 學人們의 浮艷한 文風을 없애고 務本向道하는 氣風을 기르려고 하던 터였으므로 柳三變의 이름이 榜에 올라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술맛이나 보며 나직이 노래나 부를 것이지 무엇하러 헛된 명예는 요구하는 거야”<sup>(6)</sup>하고 그의 이름을 榜에서 빼어버리게 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仁宗은 柳永의 鶴沖天詞를 고집어서 落榜시킨 꼴이 되었다. 鶴沖天詞에는 仁宗을 諷刺한 뜻이 들어있어 仁宗이 그것을 不快하게 여겨 그렇게 했는지도 모른다. 柳永은 景祐元年(1034)에 가서야 겨우 進士에 及第했다.<sup>(7)</sup> 한편은 어떤 사람이 仁宗에게 柳永을 薦舉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仁宗의 머리 속에는 柳三變이라는 자는 “마구 風前月下에서 淺斟低唱하는” 인간이어서 벼슬을 시킬 수 없다는<sup>(8)</sup> 관념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仁宗은 “填詞하는 柳三變이 아닌가?”하고 물고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냥 填詞나 하게 내버려두라”고 하고 받아드리지 않았다.<sup>(9)</sup> 이렇게 해서 그의 官運이 막혀버리자 그는 媚館 酒樓에서 疏狂하게 지내며 “奉聖旨填詞柳三變”이라고 自稱하고 다니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후 仁宗의 柳三變에 대한 좋지 못한 先入見을 拂拭하는 방편으로 그는 이름을 永으로 고치고 字도 耆卿으로 갈아버렸다. 그것이 다소 奏效해서 屯田員外郎의 벼슬을

(6) 且去淺斟低唱，何要浮名。

(7) 景祐는 仁宗의 第4年號다.

(8) 方輿勝覽에 인용된 仁宗의 말은 다음과 같다：此人任從風前月下，淺斟低唱，豈可令仕宦？

(9) 藝苑雌黃에 이記事가 나온다：上曰“得非填詞柳三變乎？”曰：“然。”上曰：“且去填詞。”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柳屯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柳永은 教坊의 新曲에 맞춰 부를 歌詞를 많이 지어 이미 作詞者로서의 名聲이 높았으나 특히 그가 지은 上元辭는 教坊의 唱妓와 樂工들을 추어준 말이 들어 있어 宮禁 안에서 많은 칭찬을 받았다. 이 上元辭는 倾杯樂의 詞調에 맞춰 지은 것으로 樂章集 上의 仙呂宮에 編入되어 있고 麗志에도 唐樂 散詞의 하나로 들어 있다. 樂章集과 麗志 사이에는 倾杯樂詞 原文에 文字上의 出入이 약간 있다. 樂章集의 原文에 따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 傾 杯 樂

禁漏花深，繡工日永，蕙風布暖。變韶景、都門十二，元宵三五，銀蟾光滿。連雲複道凌飛觀。聳皇居麗，嘉氣瑞煙蕙蒨。翠華宵幸，是處層城闕苑。龍鳳燭、交光星漢。對咫尺鼈山、開羽扇。會樂府、兩籍神仙，梨園四部絃管。向曉色、都人未散。盈萬井、山呼鼇抃。願歲歲天仗裏、常瞻鳳輦。<sup>(10)</sup>

禁中의 漏刻 있는 곳 꽃 깊이 피어나 있고  
수놓는 女工들에게 하루 해 긴데  
蕙草 향기 풍기는 바람 따뜻한 기운 편다  
봄 경치 무르익어가는데 서울의 열두 城門 안에  
정월 대보름  
은빛 달의 광채 가득 차 있다  
구름까지 차닿은 복도와 하늘 자르고 나는 듯한 門樓  
치솟은 皇居는 아름다운데  
좋은 기운과 상서로운 안개 자욱하다  
푸른 막 화려한 잔치 자리에 저녁에 거동하시니  
層城의 閨苑이로다  
  
용과 봉의 초롱 그 광채 은하수까지 비친다

(10) 後段 “會樂府兩籍神仙，梨園四部絃管”이 특히 禁中에서의 칭찬의 對象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避暑錄話의記事에 보인다. 麗志本과의出入은 다음과 같다. 前段：變→漸，後段：羽→雉，向→漸，常→鎮，鳳→金。

鼇山 지척 앞에 羽扇 펼쳤는데  
 樂府 두 部의 神仙隊와  
 梨園 네 部의 管絃 모여 있다  
 새벽 빛 밝아오는데도 서울의 사람들 흘어져가지 않고  
 모든 동네에 가득 차 산에 데아리치게 萬歲 외치며 세차게 손뼉친다  
 해마다 天子의 儀仗 속으로 凤輦을 보게 되기 바란다

柳永이 屯田員外郎이 된 후 얼마 안되어서 太史가 老人星이 나타났다고 上奏한데다 때마침 가을 비가 개어서 宮中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때 仁宗이 左右의 詞臣에게 樂章을 지으라고 命했다. 柳永은 上元辭로 宮中에서 칭찬을 받았던 터였고 하여 內侍가 柳永에게 樂章을 지어올리도록 당부하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柳永 자신도 그때 좋은 자리에 登用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그 機會를 빌어 仁宗의 마음을 끌 심산으로 醉蓬萊詞를 지어 바쳤다. 이 醉蓬萊詞는 樂章集 中의 林鐘商에 編入되어 있고 麗志에도 唐樂 散詞의 하나로 들어 있다.

### 醉蓬萊<sup>(11)</sup>

漸亭皋葉下，臘首雲飛，素秋新霽。華闕中天，鎖蔥蔥佳氣。嫩菊黃深，拒霜紅淺，近寶階香砌。玉宇無塵，金莖有露，碧天如水。正值昇平，萬機多暇，夜色澄鮮，漏聲迢遞。南極星中，有老人呈瑞。此際宸遊，鳳輦何處，度管絃清脆。太液波翻，披香簾捲，月明風細。

이윽고 정자의 연못에 나무잎 떨어지고  
 龜頭山 꼭대기에 구름 날리고  
 훤 가을 갓 개었다  
 화려한 궁궐 하늘 복판에 치솟았고  
 벽찬 아름다운 기운 가득 차 있다  
 연한 국화 노란빛 질고  
 서리를 벼티는 단풍 붉은빛 품은 것이

(11) 麗志本에는 題下에 “慢”字가 注記되어 있고, 前段 “鎖”字가 “鎖”으로 되어 있다. 鎖은 鎮의 誤字임이 分明하다.

보배 쟁계와 향기 풍기는 섬돌에 가까이 있다  
 옥 질엔 먼지 없고  
 쇠줄기에는 이슬 있고  
 푸른 하늘은 물같구나

마침 태평시절을 당하여  
 萬機는 겨를이 많다  
 밤 경치는 깨끗하여  
 漏刻 소리 아득히 들려오는데  
 南極星에는  
 노인이 있어 상시로운 물건 바친다  
 이때 삼감님 노니실텐데  
 봉황 장식한 螺은 어느 곳에 있을까  
 생각친대 통악 소리는 맑고 부드러워  
 太液池의 물결은 뒤집힐 것이고  
 향기 풍기는 발을 열어 말아 올릴제  
 달은 맑고 바람은 부드러울 것이라

그런데 柳永의 期待와는 달리 이 醉蓬萊詞는 仁宗을 대단히 不快하게 만들었다. 仁宗이 이 柳永의 詞를 받아보자 그 맨 첫머리가 “漸”字로 시작된 것으로 이미 不愉快한 氣色을 지었다. 仁宗은 “此際宸遊, 凤輦何處”까지 읽어내려가자 “宸遊鳳輶何處” 6字는 바로 仁宗 자신이 지은 真宗의 挽詞에 나오는 말과 우연히 合致되어 惘然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다시 “太液波翻”까지 읽어내려가자 仁宗은 “왜 ‘太液波澄’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하고 그것을 땅바닥에 내던져 버렸다. 이러한 緣由로 해서 柳永은 끝내 벼슬길이 트이지 않고 不遇한 가운데서 餘生을 보내야 했다. 樂章集에는 離別과 行旅와 追憶을 다룬 作品이 적지 않다. 그러한 것들은 단순한 男女의 悲歡離合을 다룬것을 除外하고는, 대체로 柳永이 没落한 時期에 지은 作品이라 여겨진다. 笛家弄 1首를例로 들어 보기로 한다.

笛 家 弄<sup>(12)</sup>

花發西園，草薰南陌，韶光明媚，乍晴輕暖清明後。水嬉舟動，禊飲筵開，銀塘似染，金隄如繡。是處王孫，幾多遊妓，往往攜纖手。遺離人，對嘉景，觸目傷懷、盡成感舊。別久。帝城當日，蘭堂夜燭，百萬呼盧，畫閣春風，十年沽酒。未省、宴處能忘管絃，醉裏不尋花柳。豈知秦樓，玉簫聲斷，前事難重偶。空遺恨，望仙鄉，一餉消凝、淚沾襟裏。

葵 西園에 피어나고  
 풀 남쪽 밭길에 향기롭고  
 봄 경치 밝고 고운  
 곤 비개이고 가볍게 따뜻한 清明 지난 때  
 물 즐겁고 배 움직이고  
 禊 술 잔치 펼쳐지고  
 은빛 못두렁 물드린 것 같고  
 황금빛 득 수놓은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 王孫들  
 하많은 놀이 나온 妓女들과  
 왕왕 보드라운 손 잡고들 했다  
 밀려난 사람  
 아름다운 경치 대하니  
 보이는 것 가슴속 슬프게 하고  
 모두 지난날의 생각 차아낸다  
 헤어진지 오래되었다  
 皇帝의 都城에 있던 그 시절  
 화려한 대청 밤중에 촛불 밝히고  
 百萬 건 투전  
 단장한 누각의 봄바람  
 생각지를 못했나니 잔치 자리에서 管絃을 잊을 수 있다던지  
 술취한 중에 花柳를 찾지 않는다면지 하는 것은  
 어찌 알았으랴 秦氏의 누각에서  
 옥 통소 소리 끊어지고  
 전날의 일 다시 갖게 되기 어려워 겼다

(12) 樂章集 上 仙呂宮에 編入되어 있다.

부질없이 한만 남기고  
 신선 고장 바라보며  
 환동안 정신없이 응시하니  
 눈물이 옷깃과 소매 적신다

柳永은 晚年에 流浪 끝에 襄陽에서 세상을 떠났다. 완전히 没落해서 집안에 葬費조차 없어 妓女들이 돈을 모아 그를 묻어주었다는 것이다. 그의 葬地를 襄陽 南門 밖이라고도 하고 襄陽縣의 花山이라고도 한다.<sup>(13)</sup> 襄陽縣은 襄陽府의 屬縣이었으므로 같은 곳을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清明이 되면 遠近의 사람들이 酒肴를 가지고 柳永의 무덤을 찾아가 마시고는 했는데 그것을 弔柳會 또는 弔柳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의 詞才와 風流는 死後에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記憶되었던 것이다.

### 3. 柳永의 詞作品

지금으로서는 清 朱孝臧의 校本 樂章集이 柳永의 詞集으로는 가장 完整하다<sup>(14)</sup>. 이 朱校本 樂章集에는, 上中下 3卷에 194首의 詞作品이 收錄되어 있고 다시 繳添曲子라는 標題로 12首가 附錄되어 있어, 도합 206首가 들어 있다. 樂章集에는 모든 作品이 宮調別로 分屬되어 있다. 쓰여진 宮調는 18種이고 詞調는 140種이나 된다. 同名의 詞調라 하더라도 宮調에 따라 律調의 長短이 같지 않고同一 宮調에 속하는 同名의 詞 사이에도 長短이 다른 경우가 없지 않다. 宮調에 따른 詞調名과 作品數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3) 襄陽縣은 지금의 湖北省 襄陽縣 東部.

(14) 朱校本 樂章集 이외에 비교적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은 宋六十名家詞에 編入되어 있는 毛晉(1598—1659)本 樂章集 1卷이다. 이 毛晉本은 分卷이 되어 있지 않다. 宮調의 表示는 樂章集의 경우와 같으나 繳添曲子는 따로 없고 그一部가 다른 作品과 섞여서 編入되어 있다. 그리고 作品數가 193首로 朱校本보다 13首가 적다. 다만 調名下의 副題가 朱校本보다 많고 한 두 가지 註記가 있는 것이 特色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四部備要에 들어 있는 이 毛本에는 斷句의 表示가 있다.

1. 正宮：黃鸝兒 玉女搖仙佩 雪梅香 尾犯 早梅芳 鬪百花3  
甘草子2 [7調10首]
2. 中呂宮：送征衣 畫夜樂2 柳腰輕 西江月 [4調5首]
3. 仙呂宮：傾杯樂 笛家弄 梁州令(續) [3調3首]
4. 大石調：傾杯樂 迎新春 曲玉管 滌朝歡 夢還京 凰銜杯2  
鶴沖天 受恩深 看花回2 柳初新 兩同心2 女冠子 玉樓  
春5 金蕉葉 惜春郎 傳花枝 [16調23首]
5. 雙調：雨霖鈴 定風波 尉遲杯 慢卷絹 征部樂 佳人醉  
迷仙引 御街行2 歸朝歡 采蓮令 秋夜月 巫山一段雲5 婆羅  
門令 [13調18首]
6. 小石調：法曲獻仙音 西平樂 凤棲梧3 法曲第二 秋葵香  
一寸金 [6調8首]
7. 歇指調：永遇樂2 卜算子 鵲橋仙 浪淘沙 夏雲峰 浪  
淘沙令 荔枝香 祭天神(續) [8調9首]
8. 林鍾商：古傾杯 傾杯 破陣樂 雙聲子 陽臺路 內家  
嬌 二郎神 醉蓬萊 宣清 錦堂春 定風波 訴衷情近2  
留客住 迎春樂 隔簾聽 凤歸雲 拋毬樂 集賢賓 帶人嬌  
思歸樂 應天長 合歡帶 少年遊10 長相思 尾犯 木蘭花  
4(續)3 駐馬聽 訴衷情 [28調44首]
9. 中呂調：戚氏 輪臺子2 引駕行 萬遠行 彩雲歸 洞仙  
歌 離別難 擊梧桐 夜半樂1(續)1 祭天神 過瀕歌近2  
安公子 菊花新 歸去來(續) 燕歸梁(續) 迷神引(續)  
[15調18首]
10. 平調：望漢月 歸去來 燕歸梁 八六子 長壽樂 瑞鶼  
鵠(續) [6調6首]
11. 仙呂調：望海潮 如魚水2 玉蝴蝶5 滿江紅4 洞仙歌 引

鴛行	望遠行	八聲甘州	臨江仙	竹馬子	小鎮西	小鎮
西犯	迷神引	捉拍滿路花	六么令	剔銀燈	紅窗聽	臨江
仙	鳳歸雲	女冠子	玉山枕	減字木蘭花	木蘭花令	甘州
令	西施3	河傳2	郭郎兒近			〔27調38首〕
12.	南呂調：透碧霄	木蘭花慢3	臨江仙引3	瑞鶴鵠2	憶帝京	〔5調10首〕
13.	般涉調：塞孤	瑞鶴鵠2	洞仙歌	安公子2	長壽樂	〔5調7首〕
14.	黃鍾羽：傾杯					〔1調1首〕
15.	大石調：傾杯					〔1調1首〕
16.	散水調：傾杯	傾杯樂(續)				〔2調2首〕
17.	黃鍾宮：鶴沖天					〔1調1首〕
18.	越調：清平樂					〔1調1首〕

柳氏의 詞集을 樂章으로 命名한 것은 그가 지어낸 詞作品이 樂章의 歌詞로서의 性格이 뚜렷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sup>(15)</sup>.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의 樂章集은 文學作品으로서의 詞集으로 編成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歌唱을 위한 歌詞의 臺本으로 엮어졌던 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다. 지금으로서는 柳永 生存時에 그의 詞集이 刊行되었는가의 輿否는 알아볼 길이 없으나<sup>(16)</sup>, 諸家의 刊記와跋文 등에 樂章集의 宋本이 言及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宋代에 이미 그의 詞集이 刊行되기 시작

(15) 柳永과 同時代의 詞家 張先(990-1078)의 詞集인 張子野詞(2卷 및 補遺上 下)도 宮調別로 編成되어 있다. 쓰여진 宮調는, 正宮 中呂宮 南呂宮 道調 宮 仙呂宮 大石調 雙調 小石調 歇指調 林鍾商 中呂調 高平調 仙呂調 般涉 調 도합 14種이다. 補遺에도 상당히 많은 作品이 들어 있으나 宮調의 表示는 없다. 張先과 柳永의 단계에서는 詞는 樂曲의 歌詞로서의 意義가 支配的이었던 것이다.

(16) 教坊 樂工이 新腔(즉 새 樂曲)을 연으면 반드시 柳永에게 그 歌詞를 지어 받아야 널리 流行되었다던지, 무릇 우물물이 있는 곳이면 柳永의 詞를 노래 했다던지, 柳永의 詞는 온 천하가 노래했다던지 하는 말이 전해지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柳永 당시에 이미 그의 詞集이 歌詞集으로 널리 普及되었을 可能성이 짙다.

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朱孝臧이 校刊한 樂章集의 底本은 毛辰(1640—?)의 校正本이다.<sup>(17)</sup> 毛辰는 清初 徐文元의 含經堂宋本에 의거해서 校正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毛辰가 의거한 宋本은 上中下 3卷에 그쳤는데 그는 다시 周氏와 孫氏의 鈔本에서 繢添曲子 部分을 찾아내어 附錄으로 삼았다. 역시 毛辰가 編次한 汲古閣秘本書目에는 柳公樂章五本이 著錄되어 있는데 “지금 세상에 통행되는 版本들은 다 완전하지 않다. 이 宋版은 특히 완전하다”<sup>(18)</sup>는 注記가 붙어 있다. 朱孝臧도 이 汲古閣宋本을 보지 못했다고 跋文에서 말하고 있다. 또 陸心源(1834—1894) 所藏宋本이 있어서 繢小珊瑚 등이 海豐吳氏重梓毛本에 採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陸心源의 皕宋樓藏書志에는 毛辰의 手校本이 宋槧이 아니라 고 말하고 있다. 宋本의 藏家인 陸心源의 말이므로 상당히 信憑性이 있다고 여겨진다.<sup>(19)</sup> 한편 杜文瀾(1815—1881)의 詞律校勘記와 徐本立의 詞律拾遺에도 宋本이 言及되어 있으나, 朱孝臧의 意見으로는 그들이 宋本이라고 한 것은 依據할만한 게 못된다. 이렇게 柳永詞集의 宋本은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輪廓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밖에 朱孝臧이 參校한 版本 가운데 趙琦美(1563—1624)가 校刊한 焦竑(1541—1620)의 三卷本이 있다.<sup>(20)</sup>

柳永의 樂章集은 朱孝臧이 이미 謹嚴한 態度로 校勘한 바 있으나 朱氏가 參校하지 않은 欽定詞譜, 麗志의 唐樂, 各種 選集 등에 收錄되어 있는 柳永詞도 對校하여 철저한 校理作業을 推進해서 樂章集의 定本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長短句의 面貌를 正確하게 파악하기 위해 樂

(17) 毛辰는 有名한 書誌家 毛晉의 아들이다.

(18) 今世行本, 俱不全. 此宋版特全.

(19) 陸心源이 藏한 宋版本은 대부분 일본의 靜嘉堂文庫에 彙屬되어 있다. 筆者는 아직 同文庫에 宋版 樂章集이 있는지의 與否를 確認하여 보지 못했다.

(20) 朱氏의 跋文에는 清常道人趙元度校焦弱侯三卷本으로 되어 있다. 清常道人은 趙琦美的 號, 元度은 그의 字. 弱侯는 焦竑의 字. 焦本의 系統은 알 길이 없다. 朱氏의 校記에 焦本과의 異同이 표시되어 있는데 좋은 점을 많이 保存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준다. 朱氏가 焦本에서 取한 것도 상당히 많다.

章集에 收錄된 모든 作品에 分段 句讀 및 音韻의 表示를 定着시키는 일  
이 遂行되어야 한다. 詞譜 40卷은 康熙 54年(1715)에 欽定版으로 出刊  
한 것으로, 萬樹(1692前後)의 詞律 20卷이 나온 후에 編次되어 그것을  
參考할 수 있었고 活用한 資料도 풍부하다. 朱校本 樂章集에 收錄된 柳  
永의 詞는 거의 전부가 詞譜에 詞例로 圖解되어 있어 原文과 句讀에 걸  
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詞譜의 柳詞 原文은 朱校本과出入이 있  
는데, 使用한 底本의 差異에서 異同이 생기기도 하였겠으나 詞譜의 編  
者가 몇대로 改動한 것도 없지 않은 듯하다. 朱校本과의 差異의 상황을  
보기 위해 一寸金(中, 小石調)과 輪臺子(下, 中呂調) 2首를 살펴보기로  
한다. 句讀와 音韻은 詞譜의 圖解에 따르기로 한다.

### 一 寸 金

井絡天開，蠍嶺雲橫控西夏。地勝異、錦里風流，蠶市繁華，簇簇歌臺舞榭。雅俗  
多遊賞，輕裘俊、靚妝豔冶。當春晝，摸石江邊，浣花溪畔景如畫。 夢應三刀，  
橋名萬里，中和政多暇。仗漢節、攬轡澄清，高掩武侯勲業，文翁風化。台鼎須賢  
久，方鎮靜、又思命駕。空遺愛，兩蜀三川，異日成嘉話。

〔詞譜34〕前段：“雲橫”作“橫雲”。“風流”作“風光”。“江邊”作“池邊”。“溪畔”作“  
溪上”。後段：“須賢久”作“思賢久”。“又思”作“又還”。“兩蜀三川”作“西蜀山川”。

### 輪 臺 子

霞斂澄江，煙消藍光碧。形霞襯遙天，掩映斷續，半空殘月。孤村望處人寂寞。聞  
釣叟、甚處一聲羌笛。九疑山畔纔雨過，斑竹作、血痕添色。感行客。翻思故國，  
恨因循阻隔。路久沈消息。 正老松枯柏情如織。聞野猿噭、愁聽得。見釣舟初出  
，芙蓉渡頭，鶯鶯灘側。干名利祿終無益。念歲歲閒阻，迢迢紫陌。翠娥嬌豔，從  
別後經今，花開柳折傷魂魄。利名牽役。又爭忍、把光景拋擲。

〔詞譜36〕前段：“煙消”作“煙鎖”。“殘月”作“殘壁”。“故國”作“故鄉”。後段  
：“情如織”作“青如織”。“從別後經今”無“後”字。

이 밖에 朱校本과 詞譜本 사이에는 分段上에 差異도 있다.

朱校本에는 麗志 唐樂에 들어 있는 柳永詞가 參校되어 있지 않다. 麗志의 柳永詞는 麗志 唐樂을 校釋할 때 筆者가 이미 朱校本 樂章集과 對校한 바 있다. 麗志에 收錄되어 있는 柳永詞는 宋의 教坊本 系統을 끈 것으로 樂章集으로 정리된 것과는 의외로 다른 면이 보존되어 있다. 麗志 唐樂의 散詞로 編入되어 있는 확실히 究明된 柳永의 詞는 다음 8首뿐이다.

1. 轉花枝令：樂章集(上)에는 傳花枝로 되어 있고 大石調에 編入되어 있다. 이 詞調는 詞律과 詞譜에 다 圖解되어 있지 않다.
2. 夏雲峰慢：樂章集(中)에는 夏雲峰으로 되어 있고 慢字의 表示는 없다. 歎指調에 編入되어 있다.
3. 醉蓬萊慢：樂章集(中)에는 醉蓬萊로 되어 있고 慢字의 表示는 없다. 林鍾商에 編入되어 있다.
4. 倾杯樂：樂章集(上)에는 이 倾杯樂은 仙呂宮에 編入되어 있다. 柳永은 各種 宮調에 따른 倾杯樂을 많이 지었다.
5. 雨霖鈴慢：樂章集(中)에는 雨霖鈴으로 되어 있고 慢字의 表示는 없다. 雙調에 編入되어 있다.
6. 浪淘沙令：樂章集(中)에는 歎指調에 編入되어 있다.
7. 御街行令：樂章集(中)에는 令字의 表示가 없다. 雙調에 編入되어 있다.
8. 臨江仙慢：樂章集(下)에는 慢字의 表示가 없다. 仙呂調에 編入되어 있다.

傳花枝와 臨江仙 2首를 例로 들어 보기로 한다.

### 傳 花 枝

平生自負，風流才調。口兒裏、道知張陳趙。唱新詞，改難令，總知顛倒。解刷扮，能咲嗽，表裏都峭。每遇著飲席歌筵，人人盡道，可惜許老了。閻羅大伯，曾教來道，人生但不須煩惱。遇良辰，當美景，追歡買笑。臘活取百十年，只恁斯好。

。若限滿，鬼使來追，待倩箇、掩通著到。

〔麗志 唐樂〕 前段：“道知”作“道得些知”。“峭”作“俏”。後段：“閻羅”作“閻家”。“但不須”，“但”下多“寬懷”二字。“百十年”，“十”作“千”。“若限滿”，“限”作“恨”。“追”下多一“臨”字。

### 臨江仙

夢覺小庭院，冷風淅淅，疏雨瀟瀟。綺窗外、秋聲敗葉狂飄。心搖。柰寒漏永，孤枕悄，淚燭空燒。無端處，是繡衾鴛枕，閒過清宵。蕭條。牽情繫恨，爭向年少偏饒。覺新來、憔悴舊日風標。魂消。念歡娛事，煙波阻，後約方遙。還經歲，問怎生禁得，如許無聊。

〔麗志 唐樂〕 前段：“淅淅”作“漸漸”。“瀟瀟”作“蕭蕭”。“淚燭”作“燭淚”。“空燒”作“空喚”。“蕭條”屬前段。後段：“繫恨”作“惹恨”。“偏饒”作“偏饒”。“新”作“研”。“禁得”作“奈得”。“聊”作“慘”。

현재로서는 樂章集에 收錄된 作品만을 가지고 麗志의 唐樂 歌詞 가운데에서 柳永의 作品을 찾아내는 길 밖에 없다. 그러나 筆者의 觀察로는 麗志의 唐樂 歌詞 중에는 지금까지 樂章集과 對照하여 究明된 것 이외에도相當量의 柳詞가 들어 있을 것 같다.<sup>(21)</sup> 散詞에 뿐 아니라 中曲과 大曲의 歌詞에도 柳詞가 들어 있는 것 같아 여겨진다.

### 4. 歡樂과 聲色

柳永이 汴京에 있는 동안에는 歡樂을 追求하고 聲色에 沉溺했던 것으로 추측되나, 그가 그러한 생활을 詞로 썼다는 점에서 단순한 蕩兒와는 判異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는 狹邪의 妓樓를 찾아다니며 歡樂을 追求하면서도 그러한 세계의 즐거운 면을 捕捉해서 誇張을 느낄 정도로 描寫해냈던 것이다. 柳永은 그러한 詞에서 당시의 口頭語를 前例 없이 대담하게 活用했다. 畫夜樂을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21) 摘文 高麗史樂志唐樂考 3.2.3.2.「柳永과 麗志 散詞」參照。

晝夜樂<sup>(22)</sup>

洞房記得初相遇，便只合、長相聚。何期小會幽歡，變作離情別緒。況值闌珊春色暮。對滿目、亂花狂絮。直恐好風光，盡隨伊歸去。一場寂寞憑誰訴。算前言、總輕負。早知恁地難拚，悔不當時留住。其奈風流端正外，更別有、繫人心處。一日不思量，也攢眉千度。

기억하거니와 洞房에서 처음 만나자  
 바로 길이 서로 모여 있어야 마땅 하였다  
 어찌 예측하였겠는가 간단히 만나 그윽한 기쁨 가졌던 것이  
 이별의 정서로 변해버릴 줄이야  
 하물며 난만한 봄빛 저물어가  
 눈에 가득 어지려운 꽃 미친듯한 벼들솜 대합에 라  
 곧장 두렵기는 좋은 경치가  
 깡그리 그를 따라 가버릴까 하는 거라  
  
 한바탕의 적막함을 누구에게 호소하나  
 앞서의 말은 결국 가볍게 저버린 셈이라  
 일찌감치 이렇게 참기 어려우리란 것 알았어야지  
 그 데 잡아두지 않은 게 후회가 된다  
 어찌 하리오 풍류스럽고 단정한 것 이외에  
 또 따로 사람 마음 매어놓는 데 있으니  
 하문들 생각하지 않으라  
 눈쌀도 친벌이고 짜푸리는데

이 畫夜樂에 쓰여진 口頭語的 表現을 추려 보면, 前段의 “記得” “便只合” “變作” “直恐” “隨伊” 등과 後段의 “憑誰訴” “算” “總輕負” “恁地” “難拚” “留住” “更別有” “也”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柳永이 처음으로 詞에 口頭語를 끌어쓴 것은 아니다. 唐五代詞에도 약간씩은 口頭語가 쓰여졌으나 부드러운 文言의 語調의 태두리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했다. <sup>(23)</sup> 같은 時期의 詞家인 張先도 男女의 歡樂을 다른 詞에서는 口頭

(22) 樂章集上 中呂宮에 編入되어 있다.

(23) 章莊과 和凝의 江城子를例로 들어 두가로 한다. 章：恩重嬌多情易傷。漏更長。解鴛鴦。朱唇未動、先覺口脂香。緩揭繡衾抽皓腕，移鳳枕，枕潘郎。和：迎得郎來入繡閣。語相思。連理枝。鬢亂釵垂、梳墮印山眉。姪婉含情嬌不語，纖玉手，撫郎衣。

語를 꽉 대담하게 運用하였으나 中調에서는 활발하고 長調에서는 그리 심하지 않다.<sup>(24)</sup> 歡樂의 경지를 다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口頭語的 表現을 써야했을 것이고 大衆이 愛唱할 수 있는 歌詞를 짓는다는 意識이 作用하는데 따라 역시 口頭語的 表現을 많이 活用하게 되었을 것이다.

妓女의 容貌舉止를 色情과 연결시켜 써내는 데에 柳永은 뛰어난 솜씨를 나타냈다. 描寫하는 角度가 多樣하고 愛情도 곁들이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露骨的인 官能的 快樂의 언저리를 감돌고 있다. 앤된 妓女를 그려낸 다음의 闌百花를 그런 作品의 좋은例로 들 수 있다.

### 闌百花<sup>(25)</sup>

滿搦宮腰纖細。年紀方當笄歲。剛被風流沾惹，與合垂楊雙鬢。初學嚴妝，如描似削身材，怯雨羞雲情意。舉措多嬌媚。爭柰心性，未會先憐佳婿。長是夜深，不肯便入鴛被。與解羅裳，盈盈背立銀缸，卻道你但先睡。

잔뜩 죄인 궁중풍의 허리 섬세한데

나이는 바야흐로 머리 올릴 때가 되었다

막 풍류기 배어들어

그녀에겐 수양벼들 쌍쪽이 어울린다

처음으로 가진 단장 차려

그린 듯하고 깎은 듯한 몸매

정사 겹내고 부끄러워 하는 마음

거동에 애교가 담백하다

어찌 하니오 마음성에

(24) 張先은 中調에서는 柳永 못지않게 口頭語를 활용했다. 雙調의 生查子를 例로 들어두기로 한다：當初相見時，彼此心蕭洒。近日見人來，卻恁相謾訛。

休休休便休，美底教他且。匹似沒伊時，更不思量也。長調의 경우에는 口頭語의인 語調가 아주 減殺된다. 역시 雙調의 歸朝歡을 例로 들어두기로 한다：聲轉轆轤聞露井。曉引銀絳牽素綆。西園人語夜來風。叢英飄墜紅成徑。寶貌煙未冷。蓮臺香蠟殘痕凝。等身金，誰能得意，買此好光景。粉落輕妝紅玉瑩，月枕橫釵雲墜領。有情無物不雙棲，文禽只合常交頸。晝長歡豈定。爭如翻作春宵永。日瞳曬，嬌柔嬾起，簾押殘花影。

(25) 樂章集 上 正宮에 編入된 闌百花 3首 중의 第3首다.

좋은 신랑 먼저 사랑할 줄 모르니  
 늘 밤이 길도록  
 원양 이불에 곧 들어가려 들지 않는다  
 집 치마 풀어주면  
 풍만하게 온 등잔 등지고 서서  
 “당신 그냥 먼저 자요”하고 말하는 거라

다음의 柳腰輕은 妓女의 舞蹈을 노래한 것이다.

### 柳 腰 輕<sup>(26)</sup>

英英妙舞腰肢軟。章臺柳，昭陽燕。錦衣冠蓋，綺堂筵會，是處千金爭選。顧香砌、絲管初調，倚輕風、佩環微顫。乍入霓裳促徧。逞盈盈、漸催檀板。慢垂霞裏，急趨蓮步，進退奇容千變。算何止、傾國傾城，暫回眸、萬人腸斷。

부드럽고 장한 묘처 있는 춤 허리와 사지 연하니  
 章臺路의 벼들이고  
 昭陽殿의 제비라  
 비단 옷에 冠 쓰고 수레 타는 이들  
 문채 배푼 대청 잔치 모임  
 이곳에서 千金의 아가씨들 중에 뽑힌 것이라  
 향기로운 섬뜰 돌아보니 管絃 갓 어울렸는데  
 가벼운 바람에 나서니 폐물로 찬 옥고리 가늘게 펼친다  
 급작스리 霓裳羽衣曲의 빠른 대목으로 들어가자  
 풍만함 맘껏 드러내고 절절 박자판 재촉한다  
 천천히 노을 소래 드리우고  
 연꽃 걸음 재개 옮기며  
 나가고 물러가고 기묘한 모습 천가지로 변한다  
 따지자면 어찌 傾國 傾城의 佳인이 그치랴  
 잠깐 눈길 보내면 만사람 애끓는다

이 柳腰輕은 浪淘沙令과<sup>(27)</sup> 함께 柳永이 춤을 다룬 詞의 雙璧을 이룬

(26) 樂章集 上 中呂宮에 編入되어 있다.

(27) 樂章集 中 欲指調에 編入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有箇人人。飛燕精神。急  
 鐘環佩上華裯。促拍盡隨紅裏學，鳳柳腰身。 紗縠輕裙。妙盡尖新。曲終獨立  
 散香塵。應是西施嬌困也，眉黛雙顰。이 詞는 麗志 唐樂에도 編入되어 있는  
 데 약간의出入이 있다.

다. 妓女의 노래를 다른 詞도 적지 않다. 여기서는 畫夜樂의 其二를 예로 들어 두기로 한다.

### 畫夜樂<sup>(28)</sup>

秀香家住桃花徑。算神仙、纔堪竝。層波細翦明眸，膩玉圓搓素頸。愛把歌喉當筵逞。遏天邊、亂雲愁凝。言語似嬌鶯，一聲聲堪聽。洞房飲散簾幙靜。擁香衾、歡心稱。金鑪麝裊青煙，鳳帳燭搖紅影。無限狂心乘酒興，這歡娛、漸入嘉景。猶自怨鄰雞，道秋宵不永。

秀香은 복숭아꽃 길 집에 사는데  
따지자면 신선이라야 맞설 수 있다  
포개진 秋波로 가늘게 오린 밝은 눈  
윤기있는 옥으로 둥글게 바빈 흰 목  
노래 목청을 잔치 자리에서 뽑기를 좋아하니  
하늘 한 가에까지 뻗어 어지러운 구름 시름으로 엉기고  
말은 키여운 꾀꼬리 같아  
한마디 한마디가 들을만 하다

洞房은 술자리 끝나 발과 휘장 조용한데  
향기로운 이불을 덮고  
좋아하는 마음 어울린다  
쇠 향로에선 사한 푸른 연기 너울거리고  
봉새 방장엔 촛불 붉은 빛 흔들린다  
끝없는 미친 마음 酒興을 벌었으니  
이 즐거움 절입가경이라  
그러던지도 이웃 담 원망하여  
가을 밟은 길지 않다고 말하는 거라

美貌에歌舞가 다 뛰어난데다 嬌態까지 넘쳐흘려 그러한 女人에게는  
천재가 남다르고 풍채가 훨씬한 자기가 꼭 어울린다는 틈로歌舞가 出  
衆한 妓女를 찾아가는 자신을 써내기도 했다. 合歡帶를 그러한 詞의 代  
表的인例로 들 수 있다.

(28) 前引 畫夜樂의 第2首다.

合 歡 帶<sup>(29)</sup>

身材兒、早是妖嬈。算風措、實難描。一箇肌膚渾似玉，更都來、占了千嬌。妍歌豔舞，鶯慚巧舌，柳妒纖腰。自相逢、便覺韓娥價減，飛燕聲消。桃花零落，溪水潺湲，重尋仙徑非遙。莫道千金酬一笑，便明珠、萬斛須邀。檀郎幸有，凌雲詞賦，擲果風標。況當年、便好相攜，鳳樓深處吹簫。

몸매가 무엇보다 아름답다  
 따지자면 생김새와 거동은 사실 그려내기 어렵다  
 살갗은 온통 옥같은 데다  
 또 모든 하는 게 천가지 교태 차지하여 버린다  
 어여쁜 노래와 고운 춤  
 꾀꼬리 재치있는 혀 부끄러워 하고  
 벼들은 가는 허리 샘낸다  
 서로 만나서 부턴 곧 느꼈거니와  
 韓娥는 인기 떨어지고  
 飛燕은 명성 없어졌다  
 복숭아 꽃 떨어지는  
 시냇물 잔잔한 데로  
 다시 신선에의 길 찾아가기는 먼 것 아니다  
 千金으로 할차례의 웃음 산다고 말하지 말라  
 바로 明月珠 萬 휘로 맞이해야 하는 거라  
 낭군은 다행히  
 구름 지르는 詞賦와  
 파일 던지는 훤칠한 풍채 있다  
 하물며 한창 나이라 꼭 알맞다 서로 손잡고  
 아름다운 누각 깊은 곳에서 통소 불기가

男女의 悲歡離合을 다뤄서 당시 歡樂街의 상황을 써낸 詞가 많다. 말하자면 妓女와 蕩兒의 사이에 불과하면서도 기다림과 아쉬움이 있고 괴로움과 시름이 있는 것으로 써내서 음탕한 희롱끼를 교묘하게 浮刻시켰다. 다음에 몇가지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29) 樂章集中 林鍾商에 編入되어 있다.

迎春樂<sup>(30)</sup>

近來憔悴人驚怪。爲別後、相思煞。我前生、負你愁煩債。便苦恁、難開解。良夜永、牽情無計柰。錦被裏、餘香猶在。怎得依前燈下，恣意憐嬌態。

요즘엔 야위었다고 사람들이 놀라며 괴이 쳐어 해요  
 헤어진 후에는 그리워서 죽겠어요  
 나는 전생에 당신한테 시름에 차 번민하는 빛을 졌어요  
 그러길래 이토록 괴로운데서 헤어나기 어렵지  
 좋은 밤 간데 사랑을 끌 길 없으니 어쩔 것인가  
 비단 이불 속에는 남은 향기 그대로 있고  
 어떻게 하면 앞서같이 등불 밑에서  
 맘껏 교태를 귀염 받게 될까  
 이것은 一見 남자의 말같이 여겨지기 쉬우나 여자의 입장에서 만났던  
 사나이를 그리워하는 정을 써낸 것이다.

殢人嬌<sup>(31)</sup>

當日相逢，便有憐才深意。歌筵罷、偶同鶯被。別來光景，看看經歲。昨夜裏、方把舊歡重繼。曉月將沈，征驂已倦。愁腸亂、又還分袂。良辰好景，恨浮名牽繫。無分得與你、恣情濃睡。

그날 상봉하자  
 곧 재주를 사랑하는 깊은 뜻을 가졌다  
 노래 잔치 끝나자 우연히 원앙 이불 함께 하였다  
 헤어진 후의 세월  
 어느새 한해가 지나버렸다  
 간밤에 비로소 옛 기쁨을 다시 이었다  
 새벽 달 가타앉으려는데  
 떠나갈 말 이미 차비 차렸다  
 시름찬 속 뒤끓는데 또 다시 웃소매를 가른다  
 좋은 때 좋은 경치에

(30) 同上. (31) 同上.

한스럽다 뜬 이름에 꿀리고 얹매어서  
너와 함께 맘껏 사랑하고 단잠 잘 수 있는 분부 없으니

한해 전에 정을 나눴던 女人과 다시 하루밤을 즐기고 새벽같이 떠나  
면서 투정끼 섞인 이별의 아쉬움을 써낸 것이다. 당시 歡樂街의 風情이  
如實히 反映되었고 蕩兒의 行色도 드러나 있다.

### 小鎮西<sup>(32)</sup>

意中有箇人，芳顏二八。天然俏、自來奸黠。最奇絕。是笑時、媚靨深深，百態千嬌，再三偎著，再三香滑。久離缺。夜來魂夢裏，尤花殢雪。分明似、舊家時節。正歡悅。被鄰雞喚起，一場寂寥，無眠向曉，空有半窗殘月。

의중에 한 사람 있으니  
꽃다운 얼굴 열여섯이라  
자연스럽게 예뻐가지고  
본래부터 깍정이라  
더없이 신기하다  
그녀가 웃을 때 고운 보조개 깊고 깊어  
천백 가지 교태  
몇 차례고 기대어도  
몇 차례고 향기롭고 부드럽다  
  
오래 동안 헤어져 떨어져 있다가  
간밤에 꿈 속에서  
꽃같은 얼굴 가까이하고 눈같은 살결 대고  
분명 전의 집 시절 같았다  
막 즐거운 판에  
이웃 닭이 불려 일으켜  
한바탕의 쓸쓸함  
잠 못 이루고 새벽까지 가는데  
부질없이 창문 반쯤에 기운달 비춰온다

意中の妓女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써낸 것이다. 夢中에 상봉하고 풍

(32) 樂章集 下 仙呂調에 編入되어 있다.

족하게 즐기지 못한채 깨어나 허전한 심정을 吐露한 것이다.

柳永은 歡樂과 聲色을 追求하는 생활에 没入하는 데 있어서의 자기 나름의 辭明을 가지고 있었다. 좋은 계절의 아름다운 경치가 歡樂을追求하는 動因이 되는 것으로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느 特定한 계절의 風景만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어느 계절이던지 그의 歡樂追求의 情을 誘發할만한 風景이 없지는 않았던 것이다. 봄철에 부쳐서 노래한 刷銀燈을 例로 들어 두기로 한다.

### 剔 銀 燈<sup>(33)</sup>

何事春工用意。繡畫出、萬紅千翠。豔杏夭桃，垂楊芳草，各鬪雨膏煙膩。如斯佳致。早晚是、讀書天氣。漸漸園林明媚。便好安排歡計。論籃買花，盈車載酒，百琲千金邀妓。何妨沈醉。有人伴、日高春睡。

무슨 일로 봄이란 기술자는 궁리를 해서  
萬紅千綠을 수놓아 그려냈는가  
고운 살구꽃 어여쁜 복숭아꽃  
수양<sup>33</sup>들 꽃다운 풀  
각기 비의 기름짐 안개의 살짐 다툰다  
이같은 좋은 경치  
아침 저녁은 책 읽는 날씨라  
  
점점 동산 수풀 밝고 고우니  
바로 즐기는 계획 짜기에 안성맞춤이라  
바구니로 따져서 풋을 사고  
수레에 가득 술을싣고  
백 개의 구슬꿈자와 千金의 돈으로 기생을 맞아서  
맘껏 취한들 어떠랴  
동무해주는 사람 있어 헤가 높아지도록 봄 잠을 자고<sup>(34)</sup>

(33) 同上. 後段 第3句 “籃”은 焦循本에 따른 것이고 본래는 “檻”으로 되어 있음.

(34) 나머지 夏·秋·冬에 부쳐서 노래한 例를 한가지씩 原文만 提示해 두기로 한다. 女冠子：淡煙飄薄。鶯花謝、清和院落。樹陰翠、密葉成幄。麥秋聲景

그러나 柳永은 太平時節 繁榮의 막바지에서 豪奢를 극한 首都에 살며  
젊은 나이로 즐겁게 놀지 않고 아까운 새월을 虛送할 수 있겠느냐는 心  
恩로 歡樂을 追求했던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 正面으로 率直하게 披瀝  
된 詞로는 長壽樂을 들 수 있다.

### 長壽樂<sup>(35)</sup>

繁紅嫩翠。豔陽景、妝點神州明媚。是處樓臺，朱門院落，絃管新聲騰沸。恣遊人、無限馳驟，驕馬如流水。競尋芳選勝，歸來向晚，起通衢近遠，香塵細細。

太平世。少年時、忍把韶光輕棄。況有紅妝，吳娃楚豔，一笑千金何啻。向尊前、舞袖飄雪，歌響行雲止。願長繩、且把飛鳥繫住，好從容痛飲，誰能惜醉。

번성한 붉은 꽃 여린 푸른 일  
고운 별의 경치神州를 밝고 아름답게 단장하였다  
이곳 樓臺

。夏雲忽變奇峰、倚寥廓。波暖銀塘，漲新萍綠魚躍。想端憂多暇，陳王是日，嫩苔生閣。正鑠石天高，流金晝永，楚榭光風轉蕙，披襟處、波翻翠幕。以文會友，沈李浮瓜忍輕諾。別館清閒，避炎蒸、豈須河朔。但尊前隨分，雅歌豔舞，盡成歡樂。玉蝴蝶 其五：淡蕩素商行暮，遠空雨歇，平野煙收。滿目江山堪助，楚客冥搜。素光動、雲濤漲晚，紫翠冷、霜岫橫秋。景清幽。渚蘭香謝，汀樹紅愁。良儔。西風吹帽，東籬攜酒，共結歡遊。淺酌低吟坐中，俱是飲家流。對殘暉、登臨休歎，賞令節、酩酊方酬。且相留。眼前尤物，璣裏忘憂。望遠行：長空降瑞，寒風翦、淅淅瑤花初下。亂飄僧舍，密灑歌樓，迤邐漸迷鶯瓦。好是漁人，披得一蓑歸去，江上晚來堪畫。滿長安、高卻旗亭酒價。幽雅。乘興最宜訪戴，泛小棹、越溪瀟灑。皓鶴奪鮮，白鷗失素，千里廣鋪寒野。須信幽蘭歌斷，彤雲收盡，別有瑤臺瓊樹。放一輪明月，交光清夜。以上 3首는  
다 樂章集 下 仙呂調에 編入되어 있다. 柳永은 詞에서 계절에 부쳐 風光과  
情調를 능란하게 엮어냈다.

(35) 樂章集에는 下의 般涉調에 編入되어 있다. 朱校本은 文意가 順通하지 않는  
部分이 있어 여기서는 花草粹編에 따른 詞譜本을 取하기로 했다. 朱校本 前  
段 第7句：“嬌馬車如水”；第8句：“競”作“竟”。後段 第4句：“楚腰越豔”；第  
8句：“住”作“任”・。① 般涉調의 長壽樂 이외에도 속절없는 人生 離別 전에  
돌아보자는 일반적인 發想에 따른 詞도 치었다. 樂章集 上 大石調의 看花回  
는 그러한 部類의 代表的인 것으로 들 수 있다：屈指勞生百歲期。榮瘁相隨。  
利牽名惹遠巡過，柰兩輪、玉走金飛。紅顏成白髮，極品何爲。塵事常多雅  
會稀。忍不住眉。畫堂歌管深深處，難忘酒殘花枝。醉鄉風景好，攜手同歸。

## 붉은 문과 정원

관현악의 새 가락 끊어오른다  
 제멋대로 노는 사람들 한정없이 달려  
 우쭐대는 말들 흐르는 물같이 밀려간다  
 다투어 향기로운 꽃 찾고 좋은 경치 골라 다니다가  
 돌아오니 저물녘에 접어들어  
 뚫린 거리 遠近에 일으킨다  
 향기로운 먼지 보드랍게

## 태평세월

젊은 때에 참아 아름다운 경치를 쉽게 버려버리겠는가  
 하물며 불게 짙은 단장한 吳땅의 아가씨 越 땅의 미인 있으니  
 어찌 한번 웃음이 千金에 그치겠나  
 술준 앞을 향해 춤추는 소대 눈 날리 듯 하고  
 노래 소리 울려나 가던 구름 몇는다  
 바라건대 긴 끈으로 잠시 날아가는 까마귀(해) 매어놓았으면  
 마음 놓고 통쾌하게 마실 수 있도록  
 그누가 술취하기 아까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柳永은 젊은 나이에 마침 태평세월을 만나 繁榮과 快樂을 누리는 北宋의 首都에 살게 되어, 蕩兒의 氣質도 곁들여져, 酒와 婦人 속에서 歡樂과 聲色에 沉溺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만 그는 그러한 歡樂과 聲色을 忌諱함 없이 詞로 逼眞하게 엮어내어 그러한 세계에 휩쓸려 사는 자신을 스스로 凝視하고 있었음을 알게해 주었다. 당시 歡樂과 聲色을 詞로 써내는 것은 말하자면 時代의 作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柳永의 경우는 그러한 作風의 極限까지를 發揮하여 거의 他의 遷從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縱橫으로 運斤成風하는 技倆을 드러냈다. 그래서 오히려 詞의 새로운 作風을 摸索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 5. 謳歌와 頌祝

范鎮(1007—1087)은 仁宗 때 翰林學士를 10餘年 동안 지냈고 長嘯賦로 名聲이 異族들 사이에서까지 藉藉했던 人物이었는데 그의 晚年에 이런 말을 했다.<sup>(36)</sup> “仁宗朝 42年에 걸친 太平治世에 나는 翰苑에 10餘年 동안이나 있었으면서도 태평을 謳歌하는 말을 한 바지도 내지 못했는데 도리어 耆卿의 詞에서 그러한 것을 발견했다.”<sup>(37)</sup> 柳永이 歡樂과 聲色을 다룬 모든 作品을 그대로 당시의 태평세월의 繁榮을 謳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한 作品 이외에도 仁宗朝의 太平과 繁榮을 누리는 情況을 反映시킨 詞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가 太平을 謳歌한 것은 대체로 그 자신의 欣然한 마음에서 우러났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는 다소 阿諛氣가 있는 것이 없지는 않으나 그래도 造作의인 느낌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迎新春은 上元名節을 맞은 首都의 景象을 써낸 것이다.

### 迎新 春<sup>[38]</sup>

解管變青律，帝里陽和新布。晴景回輕煦。慶嘉節、當三五。列華燈，千門萬戶。  
徧九陌、羅綺香風微度。十里然絳樹。鼇山聳、喧天簫鼓。漸天如水，素月當午

(36) 范鎮은 北宋의 眞·仁·哲 三代에 걸쳐 생존했던 人物로, 字는 景仁, 謂는 忠文, 封號는 蜀郡公, 范蜀公이라고도 불리웠다. 華陽(지금의陝西省商縣) 사람이다. 進士, 仁宗 때 知諫院으로 封章을 19次나 올려 끈질기게 建儲를 청하다 鬢髮이 白變했다. 翰林學士로 오래 있었는데 王安石과 맞지 않아 致仕했다. 哲宗이 �即位하여 그를 端明殿學士로 起用하려 하였으나 固辭하고 就任하지 않았다. 司馬光과 意氣投合하여 두사람의 議論이 늘 合致했고 蘇軾과도 交遊했다. 그는 六經을 根本으로 하는 儒學에 專念하고 老佛申韓 등을 言及하기조차 꺼려했다. 少時에 長嘯賦로 胡騎를 물리쳐 晚年에 그가 遠에 使臣으로 갔을 때 거기서 長嘯公이라고 불렸다.

(37) 朱孝臧 宋詞三百首 吳梅箋 所引 方輿勝覽：范蜀公嘗曰“仁宗四十二年太平·鎮在翰苑十餘載，不能出一語詠歌，乃于耆卿詞見之。”

(38) 樂章集 上 大石調에 編入되어 있다.

。香徑裏，絕纓擲果無數。更闌燭影花陰下，少年人、往往奇遇。太平時、朝野多歡民康阜。隨分良聚。堪對此景，爭忍獨醒歸去。

解谷의 竹管 소리 푸른 봄 音律로 변하자  
 홍제의 고장에 양기의 운화함 갓 깔렸고  
 개인 경치에 가벼운 따뜻함 돌아왔다  
 명절 경축하느라 대보름에  
 화려한 등 느리놓은 千門 萬戶  
 모든 길에 두루 비단 옷의 향기로운 바람 약하게 지나간다  
 十里에 붉은 나두 불타고 있고  
 龍山 솟아올라 있는데 하늘에 시끄럽게 울려퍼지는 통소와 북 소리  
 이윽고 하늘은 물같은데  
 흰 달 중천에 떴다  
 향기로운 잔 길 속에는  
 갓끈 끊고 과일 던지고 하는 곳 무수하다  
 밤 깊은데 촛불 그림자 꽂 그늘 아래서  
 젊은 사람들 윙윙 기묘하게 만난다  
 태평시절 조야에 가쁨 많고 백성들 편안하고 재물 많다  
 분에 따라 좋게들 모여  
 이 경치 볼만한데  
 어찌 차마 홀로 술깨인채 돌아가겠는가

당시 上元의 慶祝 行事が 대단히 화려했던 관계로 上元에 부쳐 태평 시절을 詠歌하고 君王을 頌祝하는 뜻을 詞에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라 여겨진다.<sup>(39)</sup> 다음의 柳初新은 首都에서의 及第者들의 風流를 써서 당시의 豪奢한 情景을 드러낸 것이다.

### 柳初新<sup>(40)</sup>

東郊向曉星杓亞。報帝里、春來也。柳撻煙眼，花匀露臉，漸覺綠嬌紅妬。妝點層臺芳樹。運神功、丹青無價。別有堯階試罷。新郎君、成行如畫。杏園風細，桃花浪暖，競喜羽遷鱗化。徧九陌、相將遊冶。驟香塵、寶鞍驕馬。

(39) 前言에 引用한 傾杯樂의 上元辭도 그러한 例의 하나이다.

(40) 樂章集 上 大石調에 編入되어 있다.

동쪽 교외 세벽녘 되어가자 북두성 자루 치졌다  
 황제 고장에 봄이 왔다고 알리는 거라  
 벼들은 안개낀 눈 쳐들고  
 꽃은 이슬내린 얼굴 다듬어  
 점점 느끼게 된다 초록 교태있고 붉은빛 고운것이  
 高層의 樓臺와 꽃다운 정자 단장함을  
 神妙한 솜씨를 써서 丹青이 무값이다

이와는 따로 墳임금의 층계에서 시험이 끝나  
 새 낭군들 줄 이룬 것 그림 같다  
 살구꽃 동산 바람 보드랍고  
 복승아꽃 물결 따뜻한데  
 다투어 것 돋고 터늘 생긴 것 기뻐들 한다  
 모든 길에서 두루 서로 이끌고 끌집게 논다  
 향기로운 먼지 날리며 달리는 보옥 안장의 우쭐거리는 말

柳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首都의 美景과 繁華를 酒와  
 婦人으로 즐기지 않으면 人生이 아깝다고 結論짓게 되었던 것이다. 如  
 魚水 2首는 太平煙月을 詠歌한 것인데, 첫首는 首都 郊外 물 가의 風光  
 과 거기서의 邀遊를 다뤘고 第2首는 다소 懶怠하는 뜻을 결들여 歡樂을  
 追求하는 心情을 썼다. 첫首는 다음과 같다.

### 如魚水<sup>(41)</sup>

輕靄浮空，亂峰倒影，漱灑十里銀塘。繞岸垂楊。紅樓朱閣相望。芰荷香。雙雙  
 戲、鶼鶼鴛鴦。乍雨過、蘭芷汀洲，望中依約似瀟湘。風淡淡，水茫茫。動一片  
 晴光。畫舫相將。盈盈紅粉清商。紫薇郎。修禊飲、且樂仙鄉。更歸去、徧歷鑾坡  
 凤沼，此景也難忘。

가벼운 안개 공중에 떠 있고  
 어지러운 산봉우리 깨끗이 그림자 비추고

(41) 樂章集 下 仙呂調에 編入되어 있다. 第1首는 詞譜 23에 圖解되어 있는데 後  
 段 第3句 첫머리에 “搖”字가 더 있고 第8句의 “更”이 “便”으로 되어 있다.  
 紫薇郎은 中書侍郎의 別稱, 鑾坡는 翰林院의, 凤沼는 中書省의 別稱.

十里에 출렁이는 아름다운 호수  
 언덕을 둘러싼 수양벼들  
 울긋불긋 누각들 서로 바라보고 있으며  
 마름과 연 향기롭고  
 쌍쌍이 희롱하는 뜰부기와 원앙새  
 잠깐 비 지나가자 난초와 지초 물가와 물섬에 돌아났다  
 바라보는 광경 어렴풋이 潇湘과 같다  
 바람 담담하고  
 물 망망한데  
 한조각 미개인 빛 움직인다  
 채색비운 배들 서로 따라가는데  
 풍만한 분단장들의 맑은 소리  
 紫薇郎은  
 봄놀이로 술마시고 또 신선 고장 즐긴다  
 또 돌아가며 鏊坡와 凤沼 두루 지나가니  
 이 경치 또한 잊기 어렵다

首都의 繁榮을 노래한 것은 그의 追憶을 다룬 詞에도 많이 나온다.  
 이 밖에 首都 이외의 都會地를 다룬 詞가 몇 首 있다. 다음의 望海潮는  
 錢塘의 繁榮과 豪奢를 노래하여 太平時節의 情景을 엮어낸 詞다.

### 望 海 潮<sup>(42)</sup>

東南形勝，江湖都會，錢塘自古繁華。煙柳畫橋，風簾翠幕，參差十萬人家。雲樹  
 繞隄沙。怒濤卷霜雪，天塹無涯。市列珠璣，戶盈羅綺競豪奢。重湖疊巘清嘉。  
 有三秋桂子，十里荷花。羌管弄晴，菱歌泛夜，嬉嬉釣叟蓮娃。千騎擁高牙。乘醉  
 聽簫鼓，吟賞煙霞。異日圖將好景，歸去鳳池誇。

(42) 樂章集 下 仙呂調에 編入되어 있다. 前段 第2句 “湖”는 詞譜本에 따른 것으로, 朱校本에는 “吳”로 되어 있다. 天塹은 長江의, 凤池는 中書省의 別稱. 元 劉一清의 錢塘遺事에 따르면 柳永의 이 錢塘을 노래한 望海潮詞가 傳播하여 당시 중국 北方에서 强盛一路를 차닫고 있던 金의 第4代君主 完顏亮이 그것을 읽기에까지 이르러 錢塘의 秀麗繁華함에 魅惑되어 長江을 넘어가 그곳을 빼앗을 생각을 품었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金主 亮은 廢位되어 그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北宋은 결국 金에 滅亡되었다.

동남 지방의 명승이고  
 강호 지역의 도회지인  
 錢塘은 옛날부터 번화하였다  
 안개낀 벼들과 채색 배운 다리  
 바람 받는 밭과 푸른 잎 속의 장막  
 들쑥날쑥 느러선 十萬의 인가  
 구름같은 나무들 둑 모래 에워싸고  
 성난 파도는 서리와 눈 말아올리고  
 天然의 참호 長江은 끝이 없다  
 저자엔 珠玉 널려 있고  
 집집마다 비단옷 차림 가득차 호사함을 다툰다  
 겹겹의 호수 포개진 산봉우리 깨끗하고 좋은데  
 가을철내 계수나무 열매에  
 十里에 덮인 연꽃 있다  
 피리 소리 비개인 속에 울려나고  
 마름 따는 노래 밤중에 떠가고  
 즐겁기만한 낚시질하는 노인과 연꽃따는 아가씨  
 千騎가 높은 牙旗 둘러싸 있는데  
 醉興 속에 통소와 북 소리 들으며  
 아름다운 경치 읊는다  
 다른날 좋은 경치 그려 가지고  
 鳳池에 돌아가서 자랑해 야지

柳永은 老人星의 出現으로 宮中에서 歌詞를 모집하는 機會를 이용하여 仁宗의 歡心을 사서 좋은 벼슬자리나 얻어 보려고 힘을 들여 醉蓬萊詞를 지어 바쳤으나 도리어 仁宗을 不快하게 하여 逆効果를 가져오고 말았다. 이 일은 이미 앞에서 言及하였다. 일이 그렇게 되기는 하였으나 柳永은 그 밖에도 황제를 頌祝하는 詞를 여러 首 지어 냈다. 阿諛와 讀美로 차았기는 하나 狀況과 情景을 천연스럽게 配合시켜 真心으로 歌功頌德하는 뜻이 억누를 수 없어 歌詞로 흘러나온 것같이 느껴지게 한다. 직접 仁宗을 英哲한 임금으로 極端的인 頌祝을 試圖한 것으로는 그

의 誕日을 祝賀한 送征衣를 代表的인 例로 들 수 있다.

### 送 征 衣<sup>(43)</sup>

過韶陽。簪樞電繞，華渚虹流，運應千載會昌。罄寰宇、薦殊祥。吾皇。誕彌月、  
 瑰圖續慶，玉葉騰芳。竝景覩、三靈眷祐，挺英哲、掩前王。遇年年、嘉節清和，  
 頒率土稱觴。無閒要荒華夏，盡萬里、走梯航。彤庭舜張大樂，禹會羣方。鶴行  
 。望上國、山呼鼇抃，遙爇爐香。竟就日瞻雲獻壽，指南山、等無疆。願巍巍、寶  
 曆鴻基，齊天地遙長。

봄 빙 치 누가 그

北斗星에 별개 감돌고

화려한 물 가에 무지개 흐르는데

天運은 千年째의 數에 접어들여 번영을 맛이하여

온누리 통털어 전기한 상서 바친다

우리 황제

탄생하여

璫圖로 경사 이어(皇太子로 세워져)

玉葉(皇族의 子孫)이 꽂다움 치솟았으니

이는 다 三靈(天地人の 신령)의 둘봉과 도움 크게 받은 것이라

뛰어나가 英哲함 前王을 앞질렀나니

해마다 이 맑고 온화한 명절 맛으면

온 땅 사람들에게 祝杯를 들게 한다

要荒(먼 곳의 땅)과 華夏의 구별 없이

萬里 밖에서 운통 사다리와 배로 달려 온다

皇宮 뜰에선 舜이 大樂을 연주하고

禹가 온 고장 사람 會同시킨다

官員들 줄지어 늘어서

중앙 바라보며 만세 부르고 손뼉치고

멀리서 향로에 향 피우고

마침내 天子의 데 사모하여 구름쪽 보며 술잔 드리나니

(43) 樂章集 上 中呂宮에 編入되어 있다. 同 中 歎指調의 永遇樂 第1首도 皇帝의  
 誕辰을 頌祝한 것이다.

南山을 가리켜 그같이 단수무강하고  
원천대 높고높은 보배로운 曆數와 위대한 皇基  
하늘과 땅과 나란히 영원하여라

다음의 御街行도 임금을 직접 頌祝한 詞다. 麗志 唐樂에도 散詞의 하나로 들어 있다.

### 御 街 行<sup>(44)</sup>

燔柴煙斷星河曙。寶輦回天步。端門羽衛簇雕闈，六樂舜韶先舉。鶴書飛下，雞竿高聳，恩霑均寰宇。赤霜袍爛飄香霧。喜色成春煦。九儀三事仰天顏，八彩旋生眉宇。椿齡無盡，蘿圖有慶，常作乾坤主。

섬나무 연기 끓어지고 은하수 밟아오자  
寶輦의 天子는 걸음 돌리고  
端門에는 弓矢 맨 衛兵들이 조각한 난간에 가득 보이고  
六樂 중에서 舜임금의 大韶를 먼저 연주한다  
鶴書 날아내리고  
雞竿 높이 오르니  
天子의 은혜 온 누리에 고루 퍼진다

赤霜袍 찬란하게 향기로운 안개 날리고  
喜色은 봄볕 따스함 이룬다  
九儀三事에 天子의 龍顏 우러러보니  
여덟 가지 채색이 兩眉間에 생겨난다  
椿나무같은 수명은 다함이 없고  
蘿圖에 경사로움 있어  
언제나 乾坤의 주인노릇 하신다

임금이 물 가에 나와 褒飲하는 光景을 다룬 다음의 破陣樂은 太平의  
歡娛 속에 君王을 浮刻시킨 頌歌다.

### 破 陣 樂<sup>(45)</sup>

露花倒影，煙蕪蘸碧，靈沼波暖。金柳搖風樹樹，繫彩舫龍舟遙岸。千步虹橋，參

(44) 樂章集中 雙調에 編入되어 있는 2首 중의 첫首다. 麗志에는 詞調名에 “令”字가 註記되어 있다.

(45) 樂章集中 林鍾商에 編入되어 있다.

差鴈齒，直趨水殿。繞金闌、曼衍魚龍戲，簇嬌春羅綺，喧天絲管。靄色榮光，望中似覩，蓬萊清淺。時見。鳳輦宸遊，鸞觴禊飲，臨翠水，開鎬宴。兩兩輕舠飛畫楫，競奪錦標霞爛。罄歡娛，歌魚藻，徘徊宛轉。別有盈盈遊女，各委明珠，爭收翠羽，相將歸遠，漸覺雲海沈沈，洞天日晚。

이슬맺힌 꽃 그림자 깨끗로 비치고  
 안개낀 물 푸르름 물에 담근  
 靈沼의 물결 따뜻하다  
 금빛 벼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나무에  
 채색 배풀 배와 龍舟 만 언덕까지 매어져 있다  
 一千步의 무지개 다리  
 들쑥날쑥 늘어선 틔어나온 나무  
 곧장 水殿에까지 간다  
 금색 둑 둘러쓰고  
 魚龍 놀이 벌어져 있고  
 떼지어 물려 봄 애교 피우는 비단 차림들  
 하늘에 시끄럽게 울려나는 管絃樂  
 비개인 경치 꽂되어나 빛나  
 바라보자니 보고 있는 듯하다  
 蓬萊 탐고 얇은 것을  
 때띠로 보게 된다  
 凤輶으로 상감 노니시어  
 난새 슬찬으로 禊飲하시고  
 푸른 물 가까이서  
 鎬宴 버린다  
 두척 두척씩 가벼운 테 채색배풀 노 날듯이 저어  
 비단 標旗 노을같이 찬란한 것 빼앗기를 다투다  
 즐거움 다 끝나면  
 魚藻 노래하며  
 간드려지게 배회한다  
 따로 풍만한 놀이 나온 여인들 있는지라  
 제각기 明月珠 떠리고  
 비취 깃 눈썹의 미인 다투어 차지하여

서로 이끌고 멀리 돌아간다  
이윽고 구름 바다 잠겨있는  
넓은 하늘에 해 저물어감 느끼게 된다

이밖에 方伯을 頌美한 詞도 몇 首 전해진다. 永遇樂 第2首는 建業(秣陵, 지금의 江蘇省 江寧)에 駐在하는 方伯을 稱頌한 詞다. 柳永이 그곳에 갔을 때 歡待를 받고 지어준 것이라 여겨진다.<sup>(46)</sup> 一寸金의 井絡天開詞는 成都에 駐在하는 方伯을 稱頌한 것으로, 그곳의 風光과 方伯의 善政을 기리고 있다.<sup>(47)</sup> 柳永의 足跡이 成都에까지 미쳤던 것으로 이 詞에 나타난 情景으로 미루어본다면 직접 그곳에 가서 風物을 본 것임을 느끼게 된다. 方伯을 頌美한 이 永遇樂과 一寸金에 共通된 점은 方伯이 治績이 뛰어나고 賢能해서 머지않아 朝廷에 가서 重任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所望이 達成되리라는 것을 말해서 그들을 기쁘게 해줄 것이라 하겠다.

## 6. 羈旅와 追憶

柳永은 晚年에는 淪落하여 여러가지 사정으로 各地를 떠돌아다니면서 行旅의 시름과 고초를 詞로 썼다. 그러한 詞에는 오히려 深刻한 感情이 감돌고 인생을 진지하게 보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그리고 地方과 季節에 따른 風景의 描寫가逼眞하게 곁드려져 있다. 이러한 詞들에서 차라리 柳永의 圓熟한 詞文學의 境地를 찾아보게 된다.

行旅의 紬로움 가운데는 우선 다정한 사람과의 離別이 앞선다. 北宋

(46) 樂章集中 欯指調에 編入되어 있는데 原文은 다음과 같다: 天闕英遊，內朝密侍，當世榮退。漢守分麾，堯庭請瑞，方面憑心膂。風馳千騎，雲擁雙旌，向曉洞開嚴署，擁朱轎、喜色歡聲，處處競歌來暮。吳王舊國，今古江山秀異。人煙繁富。甘雨車行，仁風扇動，雅稱安黎庶。棠郊成政，槐府登賢，非久定須歸去。且乘閒、孫閣長開，融尊盛舉。

(47) 一寸金의 原文은 앞에 나왔음.

의 首都였던 汴京(즉 지금의 開封)을 배로 떠나며 離別의 서글픔을 염  
어낸 것이 그의 유명한 雨霖鈴이다. 雨霖鈴은 麗志에도 散詞의 하나로  
들어 있다.

### 雨霖鈴<sup>(48)</sup>

寒蟬淒切。對長亭晚，驟雨初歇。都門帳飲無緒，〔方〕留戀處，蘭舟〔初〕催發。執手相看淚眼，竟無語凝噎。念去去、千里煙波，暮靄沈沈楚天闊。 多情自古傷離別。更那堪、冷落清秋節。今宵酒醒何處，楊柳岸、曉風殘月。此去經年，應是良辰，好景虛設。便縱有、千種風情，更與何人說。

늦매미 천절하게 우는 속에  
長亭을 향해 저물어 가는데  
소낙비 것 개었다  
都門에 장막치고 두서없이 술마시며  
〔막상〕 못떠나 하고 있는 터에  
木蘭 배는 떠나기를 재촉〔하기 시작〕한다  
손 잡고 서로 눈물 편 눈을 보며  
끝내 말없이 목례어 흐느꼈다  
생각하기는 千里의 안개낀 물결을 가고 또 가고  
저녁 안개 자욱히 가라앉은 데 楚나라 하늘이 空闊하리란 것  
  
多感한 사람은 옛부터 이별을 슬퍼하는 법인데  
거다가 凋落을 가져오는 맑은 가을철을 어찌 견디겠는가  
오늘 밤은 어디에서 술이 깨겠나  
버드나루 서있는 강언덕에 세벽 바람 불고 殘月이 있는 곳일 게라  
이번 떠나 한 해 지나면  
틀림 없이 좋은 때  
좋은 경치 혀뵈이 늘이놓아지겠지  
미록 천 가지 風情 우리 난단들  
또 어떤 사람과 이야기 하겠는가

(48) 麗志本에는 前段 第5句 “留”위에 “方”자가 더 있고 第6句 “催”위에 “初”자  
가 더 있는데 古本의 면모를 보존한 것이라 여겨진다. 朱校本 樂章集에는  
中卷 雙調에 編入되어 있다.

이러한 離別의 琵琶음을 알고 결국은 배에 올라 떠나고 할았는데 배 위에서 여전히 헤어진 곳이 보이지 않도록까지 바라보는 자신을 詞로 썼다. 柳永은 자기 情感을 段落을 지어 詞로 써낼 수 있었던 것이다. 采蓮令은 憎別하고 떠나서 보이지 않는 데까지 왔을 때의 情景을 써낸 것이다.

### 采蓮令<sup>(49)</sup>

月華收，雲淡霜天曙。西征客、此時情苦。翠娥執手送臨岐，轆轤開朱戶。千嬌面、盈盈竚立，無言有淚，斷腸爭忍回顧。一葉蘭舟，便恁急槳凌波去。貪行色、豈知離緒。萬般方寸，但飲恨、脈脈同誰語。更回首、重城不見，寒江天外，隱隱兩三煙樹。

달빛 없어지고  
구름 끝은 서리내린 하늘에 날새였다  
서쪽으로 떠나가는 나그네 이 때 마음 괴롭다  
싱싱한 아가씨 손잡고 헤지는 곳에까지 전송하느라  
빼드득 붉은 문 연다  
천 가지 고태나는 얼굴로 풍만하게 우두머니 서서  
말은 없고 눈물이 있다  
애끓는 터에 어찌 차마 되돌아보랴

한조각 木蘭 배는  
그렇게 금한 노질로 물결 헤치고 가며  
갈길을 서두르니 어찌 이별하는 마음을 알랴  
만갈래 마음  
다만 한스럽 참고 물끄러미 있을 뿐 누구와 이야기하랴  
다시 고개 돌리니 결성은 보이지 않고  
찬강 하늘 끝에  
보일듯 말듯 두서너 안가킨 나무

이 采蓮令은 柳永의 詞作品 가운데에서 극히 잘 다듬어진 것들 중의

(49) 역시 雙調에 編入되어 있다.

하나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길을 떠나 하루밤을 도중에서 묵는데 뒤에 두고 온 모든 즐거웠던 일이 생각나 잠 못 이루고 離別의 쓴 맛을 되새긴다. 차라리 되돌아갈거나 하고 생각해도 보지만 일단 떠나기로 작정하고 나서 버렸으니 그럴 수도 없어 쓸쓸하진다. 憶帝京같은 詞에는 그러한 심정이 꼭 솔직하게 표명되어 있다.

### 憶帝京<sup>(50)</sup>

薄衾小枕涼天氣。乍覺別離滋味。展轉數寒更，起了還重睡。畢竟不成眠，一夜長如歲。也擬待，卻回征轡。又爭柰、已成行計。萬種思量，多方開解，只恁寂寞厭厭地。繫我一生心，負你千行淚。

얇은 이불 작은 베개 서늘한 날씨  
느닷없이 이별의 맛을 느끼게 된다  
뒤척이며 찬 밤시간 세면서  
일어났다 다시 또 자보고는 하지만  
끌내는 좀 뜻 이뤄  
하루 밤이 길기가 한 해 같으다  
  
가는 말고삐 되돌릴가도 생각하여 보기는 하나  
또 어찌하랴 이미 길 갈 계획 이루어져 버렸으니  
오만가지로 궁리를 해보고  
여러 방법으로 달래기도 하지만  
단지 이렇게 한정없이 쓸쓸하게  
내 일생동안의 마음 불들어대는구나  
네 천 줄기 눈물 저터렸다고

落魄한 신세로 길을 떠나 있으므로 쓸쓸함이加重한다. 鴛鴦衾枕에서 佳人과 함께 즐기던 것과 극히 對照되는 상황에서 떼어놓고 온 여인을 생각하는 사나이의 서글픈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한편 또 旅行 도

(50) 樂章集 下 南呂調에 編入되어 있다. 詞譜本에는 後段 第1句의 “待”가 “把”로 되어 있다.

중에 총총히 하루밤을 묵고 새벽길을 허둥지둥 떠나면서 뒤에 두고 온佳人을 생각하는 자신을 詞로 써내기도 했다. 塞孤를 그러한 情況을 절절하게 써낸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 塞 孤<sup>(51)</sup>

一聲雞，又報殘更歇。秣馬巾車催發。草草主人燈下別。山路險，新霜滑。瑤珂響  
 、起棲鳥。金鑑冷、敲殘月。漸西風緊，襟裏淒冽。遙指白玉京，望斷黃金闕。  
 遠道何時行徹。算得佳人凝恨切。應念念，歸時節。相見了、執柔荑，幽會處、偎  
 香雪。免鴛衾、兩恁虛設。

한마디 닦우는 소리  
 또 남은 밤 시간 다했음을 알려  
 말에 여물주고 수레에 회장걸고 떠나기를 재촉하며  
 총총하게主人과 등불 밑에서 헤어진다  
 산 길은 험하고  
 것 내린 서리 미끄러운데  
 채갈 장식 소리내어 잠자는 까마귀를 날리고  
 쇠 등자 차갑게 새벽 달 두드린다  
 점점 서녘바람 쐐여져  
 웃깃과 소매 때울게 차다  
 멀리 白玉京(都皇) 향하여도  
 黃金 궁궐 바라보다 보이지 않는구나  
 먼 길을 얻재나 다 가내겠나  
 결국은 佳人의 엉긴 한 절박해진 것이라  
 당연히 생각하게 되거니와  
 돌아가게 될 때는  
 만나서는 보드라운 손 잡고  
 조용히 만나는 곳에서 향기로운 눈같은 뜸에 기대어  
 원양 이불을 들어서 그렇게 헛되게 펴놓는 일 없게 하겠다

일단 目的地에 도달해서는 歡樂 속에 살던 시절이 못 잊혀져서 周邊의

<sup>(51)</sup> 樂章集 下 般涉調에 編入되어 있다.

風物이 하나도 그를 즐겁게 해주지 못하고 그대로 그를 시름에만 잡기 게 한다. 그러한 심정이 피력된 詞는 적지 않은데 여기서는 臨江仙引 한 首를 例로 들어두기로 한다.

### 臨江仙引<sup>(52)</sup>

渡口，向晚，乘瘦馬，陟平岡。西郊又送秋光。對暮山橫翠，襯殘葉飄黃。憑高念遠，素景楚天，無處不淒涼。香闌別來無信息，雲愁雨恨難忘。指帝城歸路，但煙水茫茫。凝情望斷淚眼，盡日獨立斜陽。

나루터에서

저녁 나절에

야원 말 타고

평평한 언덕에 올라

서쪽 교외에서 또 가을 경치 보낸다

앞에는 저물녘의 山 푸르름 가로놓인데

이즈려진 일 누른색 나부끼는 것 곁드려 있다

높은 곳에서 먼곳 생각하자니

가을 경치의 楚의 하늘

처량하지 않은 곳 없다

향기로운 閨房에서 헤어진 후에 소식없는데

雲雨의 시름과 한 잊기 어렵다

황제의 도성으로 돌아가는 길 향해도

다만 안개와 물 망망하여

마음 쓸리는대로 눈물고인 눈으로 끝없이 바라보며

하루해 다하도록 홀로 석양에 서있다

이러한 詞들은 다 가을철을 배경으로 해서 서글프고 스산한 情緒를  
돋구고 있다. 위에든 詞例 이외에도 가을철에 부쳐 羈愁를 노래한 詞가

(52) 樂章集 下 南呂調에 編入되어 있다. 臨江仙引은 3首가 있는데 다 羈旅의 愁苦를 다룬 것들이다. 이 渡口向晚詞는 그 第1首다.

적지 않다. 다른 계절에 부쳐 行役의 愁苦를 써낸 例가 몇 가지 있는데, 그러한 詞에는 그런 계절에 즐거웠던 일을 놀려놓고 皇都로 돌아가지 못함을 안타까워 하는 心情을 써내는 手法이 쓰여져 있다. 다음의 滿朝歡은 前段에서는 순전히 津京의 晚春 景概를 그려내고 後段에서는 같이 놀던 女人을 생각하여 서글퍼지는 자신을 써내고 있다.

### 滿朝歡<sup>(53)</sup>

花隔銅壺，露晞金掌，都門十二清曉。帝里風光爛漫，偏愛春杪。煙輕畫永，引鶯  
轉上林，魚遊靈沼。巷陌乍晴，香塵染惹，垂楊芳草。因念秦樓彩鳳，楚觀朝雲  
，往昔曾迷歌笑。別來歲久，偶憶歡盟重到。人面桃花，未知何處，但掩朱扉悄悄  
。盡日竚立無言，贏得淒涼懷抱。

꽃은 구리 漏刻 격해있고  
이슬은 쇠 손바닥에서 마르고  
都門 열들 깨끗이 날아새니  
황제의 고장 風光이 난만하여  
유독 晚春을 좋아하였다  
안개 가볍고 낮 긴데  
꾀꼬리 끌어들여 上林苑에서 짖어귀고  
물고기 靈沼에서 논다  
거리 잠깐 비개이면  
향기로운 먼지 배어드는  
垂楊버들과 꽃다운 풀

그래서 생각하게 되거니와 秦樓의 彩鳳이와  
楚觀의 朝雲이  
지난날 노래와 웃음에 미혹했었다  
헤어진지 여러해가 지났는데도  
우연히 사랑의 언약 다시 돌아왔음을 생각하게 되는구나  
사람의 얼굴 복승아꽃 같은 것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53) 樂章集 下 南呂調에 編入되어 있다.

파만 붉은 문짝 닫고 쓸쓸하게 있을 게라  
 종일 토록 우두머니 서서 말 없이 있으면서  
 처량한 회포를 벌고 있다

柳永은 外地에 나와 있다고 해서 계절따라 놀러 다니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워낙 沢京에서의 歡樂을 누리던 記憶을 지워버릴 수 없어 그 시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그의 名篇의 하나로 꼽히는 夜半樂은 그가 外地에서 船遊 끝에 다시 지난날의 歡樂을 뜯어 苦悲한心情에 몰리는 자신을 써낸 것이다.

### 夜半樂<sup>(54)</sup>

凍雲黯淡天氣，扁舟一葉，乘興離江渚。渡萬壑千巖，越溪深處。怒濤漸息，樵風乍起。更聞商旅相呼，片帆高舉。泛畫鶴、翩翩過南浦。望中酒旆閃閃，一簇煙村，數行霜樹。殘日下、漁人鳴榔歸去。敗荷零落，衰楊掩映，岸邊兩兩三三，浣紗遊女。避行客、含羞笑相語。到此因念，繡閣輕拋，浪萍難駐。歎後約、丁寧竟何據。慘離懷、空恨歲晚歸期阻。凝淚眼、杳杳神京路。斷鴻聲遠長天暮。

얼어붙은 구름의 암담한 날씨  
 일염 편주로  
 흥이나서 강물 가를 떠나  
 만 골짜 천 바위를 건너  
 越溪 깊숙한 곳에 당도하니  
 성난 파도는 점점 멎어가고  
 산나무 바람이 느닷없이 일어난다  
 또 장사배의 서로 부르는 소리 듣고  
 한조각 둑 높이 올리고  
 단청한 배 띠우고 훨훨 남쪽 포구 지나간다  
 바라보니 술집 깃발 반득이고  
 한 무더기 안개낀 마을  
 두어 줄 서리내린 나무  
 지는 해 밑에 어부가 노 소리내며 돌아간다

(54) 樂章集 中 中呂調에 編入되어 있다.

망가진 연잎 떨어져 가고  
 기운빠진 버드나무 가리워 비치는  
 강언덕 가에 둘둘 셋셋  
 김 빨며 노는 아가씨들  
 지나가는 나그네 피해  
 부끄럼 머금고 웃으며 서로들 이야기 하고 있다

이곳에 왔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었다  
 수단장한 누각 가볍게 내던지고  
 물결에 밀리는 부평 멀추기 어려워졌다  
 개탄스럽다 후에 만날 기약 꼭 다겼다고 결국 무슨 소용있겠는가  
 참담한 이별의 감회 부질없이 한해 저물어가는테 돌아갈 기약 막힌 것 한탄한다  
 눈물 고인 눈으로 지켜보는 아득한 서울 길  
 떼 잊은 큰기리기의 소리 멀고 먼 하늘 저물어간다

汴京에서의 歡樂을 잊지 못했던 柳永은 결국 外地에서의 일을 청산하고 돌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歸去來라는 말을 詞에 쓰게까지 된다. 약간의 名利를 위해 外地에서 徘徊하기보다는 다 끌어버리고 차라리 女人の 곁으로 돌아갈거나하는 心情을 表露한 것이다. 歸朝歡을 그러한 詞의 代表的인 것으로 들 수 있다.

### 歸 朝 歡<sup>(55)</sup>

別岸扁舟三兩隻。葭葦蕭蕭風淅淅。沙汀宿磯破煙飛，溪橋殘月和霜白。漸漸分曙色。路遙山遠多行役。往來人，隻輪雙槳，盡是利名客。一望鄉關煙水隔。轉覺歸心生羽翼。愁雲恨雨兩牽繫，新春殘臘相催逼。歲華都瞬息。浪萍風梗誠何益。歸去來，玉樓深處，有箇人相憶。

헤어진 강언덕에 작은 배 두서너 척  
 갈대 와수수 바람 좌좌  
 모랫벌에선 자린 기리기 안개 헤치며 날고  
 시내 다리 새벽달은 서리와 함께 흰데  
 점점 동이 터운다

(55) 樂章集中 雙調에 編入되어 있다.

길 아득하고 산 먼데 여행하는 사람 많다

오가는 사람

외바퀴 수레 쌍노의 배

모조리 名利를 찾는 사나이라

한바탕 고향쪽 바라보니 안개와 물 막혀있어

더욱 돌아갈 마음 날개돋침 느낀다

시름겨운 구름과 한스런 비 두가지 냉기고 읽혀들어

새 봄과 남은 설달 서로 성화부린다

세월은 도시 손식간에 지나가 머리는데

문결에 떠도는 부평초나 바람에 날려 다니는 풀대궁 같이 사는 것 정말 무슨  
소용이 있나

돌아가는 거라

玉樓 깊은 곳에

한사람이 생각해 주고 있으니

歸朝歡은 한 女人에 부쳐서 歸去來를 불렀으나, 柳永의 詞로서는  
극히例外的으로 名利의 追求에 汲汲하는 생활을 清算하고 漁樵로 늙어  
야 하겠다는 뜻으로 歸去來를 불러본 경우가 있다. 鳳歸雲이 그것이다.

### 鳳歸雲<sup>(56)</sup>

向深秋，雨餘爽氣肅西郊。陌上夜闌，襟裏起涼飆。天末殘星，流電未滅，閃閃隔  
林梢。又是曉雞聲斷，陽烏光動，漸分山路迢迢。驅驅行役，苒苒光陰，蠅頭利  
祿，蝟角功名，畢竟成底事、漫相高。拋擲雲泉，狎玩塵土，壯節等閒消。幸有五  
湖煙浪，一船風月，會須歸去老漁樵。

가을 짙어 가느라

비 끝의 爽涼한 기운에 서쪽 郊外 으쓱하다

길에는 밤 한창 깊고

웃깃과 소매에 찌늘한 회오리 바람 인다

하늘 끝 남은 별

흐르는 번개 꺼지지 않고

(56) 樂章集 下 仙呂調에 編入되어 있다.

수풀 끝 건너에서 번쩍거린다  
 또 날이새어 닦 소리 끊어지고  
 햇빛이 움직여서  
 점점 산 길 아득한 것 드러낸다  
 바삐 바삐 길을 가고  
 자꾸자꾸 光陰은 지나가고  
 파리 머리만한 利祿  
 달팽이 뿔 위의 功名  
 결국 무슨 일 이룩했다고 마구 자랑들을 하는지  
 구름과 샘 내던지고  
 塵土를 다정히 매만지면서  
 대단한 절개를 하찮게 없애버리다니  
 다행히 五湖의 안개낀 물결에  
 온 배의 바람과 달 있으니  
 돌아가서 漁夫와 나무꾼으로 늙어야 하는 거라

仙呂調의 滿江紅 第1首도 桐江을 지나면서 歸去來를 부르고 싶는 心情에 몰린 것을 써낸 것이다. 後段 末尾에 “況有雲泉約, 歸去來一曲, 仲宣吟從軍樂”이라 하여 雲泉約과 歸去來를 연결시키고 있다. 그렇기는 하나 柳永은 斷乎하게 歸去來를 부르고 돌아서 버리지는 못하고 笛家弄 같은 追憶에 사로잡힌 상황에서 늙어야 했다.

## 7. 結 語

위에서 柳永과 그의 詞를 考察하여 보았다. 柳永이 歡樂과 聲色에 沉溺하고 晚年까지도 그런 生活을 戀戀不忘했다 하여 일반적으로 그를 輕薄한 蕩兒로 보아넘긴다. 그러한 觀念을 갖게 만든 要因은, 그자신이 歡樂과 聲色을 追求한데도 있지마는, 그가 그러한 生活을 忌憚 없이 詞로 써낸 데 있다. 柳永의 時代에는 酒樓와 狹邪에 몰려다니면서 柳永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歡樂과 聲色에 沉溺했던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런 사람들은 歡樂을 追求하는 데에서 그치고 말았고 柳永 같이 그런 生活을 客體化해서 詞로 써내지 못해서 그들의 淫媠한 面이 露出되지 않았을 뿐이다. 柳永은 오히려 그러한 生活을 詞로 써낼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바라볼 餘裕를 가졌었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의 詞作品의 特異性 때문에 다른 眞摯한 面이 掩蔽되어 버렸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古文眞寶같은 讀本에까지 收錄된 柳永의 勸學文을 記憶한다. 길지 않으므로 그 全文을 적어보기로 한다.

### 勸 學 文

父母養其子而不教，是不愛其子也。雖教而不嚴，是亦不愛其子也。父母教而不學，是不愛其身也。雖學而不勤，是亦不愛其身也。是故養子必教。教則必嚴，嚴則必勤，勤則必成。學則庶人之子爲公卿，不學則公卿之子爲庶人。

부모로서 자기 자식을 양육하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가르친다 해도 엄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부모가 가르치는데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공부한다 해도 근면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자식을 양육하게 되면 반드시 가르치는 것으로, 가르치게 되면 반드시 엄하게 다루고, 엄하게 다루면 반드시 근면하게 되고, 근면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공부하면 서인의 자식이 公卿이 되고, 공부하지 않으면 公卿의 자식이 서인이 된다.

柳永의 勸學文은 唐의 白居易, 北宋의 眞宗, 仁宗, 司馬光, 王安石, 南宋의 朱熹 등의 勸學文과 함께 다루어져 尊重되어온 글이다. 그의 聲色을 다른 詞作品과 비교한다면 실로 극단적인 對照를 이룬다. 柳永의 이러한 部類의 글이 적지 않았을 것이나 그의 詞作品 때문에 빛을 잃고 器滅되어 버리고 勸學文 한가지만이 겨우 전해진 것이라 여겨진다.

柳永詞는 絶對多數가 歡樂과 聲色에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앞에서 본 鳳歸雲의 경우같이 전연 聲色이介入되지 않은 것이 몇 가지 들어있다.

다음의 雙聲子는 江蘇의 三吳風景과 그곳에 부친 感慨를 써낸 것으로  
東坡詞의 名篇인 念奴橋 大江東去詞를 聯想하게 하는 性格의 詞다.

### 雙聲子<sup>(57)</sup>

晚天蕭索，斷蓬蹤跡，乘興蘭棹東遊。三吳風景，姑蘇臺榭，牢落暮靄初收。夫差舊國，香徑沒、徒有荒丘。繁華處，悄無覩，惟聞麋鹿呦呦。想當年，空運籌決戰，圖王取霸無休。江山如畫，雲濤煙浪，翻轍范蠡扁舟。驗前經舊史，嗟漫載、當日風流。斜陽暮草茫茫，盡成萬古遺愁。

저녁녘의 하늘 쓸쓸한데  
끊긴 쑥대 뭉군다  
홍 솟는대로 木蘭 노를 저어 동쪽으로 가니  
三吳의 風景  
姑蘇의 누대와 경자  
적적하게 저물녘 안개 갓 걷히었다  
夫差의 옛 나라  
향기롭던 잔길들 없어지고 한갓 황량한 헌덕만이 있다  
변화했던 곳  
잠잠하니 보이는 데 없고  
오직 사슴이 우는 소리 들릴 뿐이다  
그 당시 생각하니  
부질없이 계획짜서 決戰하여서  
王者 꾀하고 簡權 취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거라  
강산 그림 같은데  
구름 파도 안개 물결  
范蠡의 조각배 뒤엎는 듯 보낸 거라  
전대의 경전과 옛 역사 찾아보니  
아아 당시의 風流가 마구 실려 있다  
기운 해에 저물녘 풀 망망한 것  
온통 萬古의 남겨진 시름 이루고 있는구나

이 雙聲子의 晚天蕭索詞는, 江山의 아름다움에 前代의 興亡盛衰를 寫

(57) 樂章集中 林鍾商에 編入되어 있다.

어 넣어서 感慨를 드러낸 것이 蘇軾의 念奴嬌 大江東去詞와 恰似하다. 더우기 蘇詞의 前段에 “江山如畫”라고 한 것은 柳詞 後段에 나온 그대로이고, 蘇詞 後段의 “遙想公瑾當年”으로 시작된 것은 마치 柳詞 後段의 “想當年”을 潤色해서 쓴 것 같다. 그리고 柳永의 雙聲子 103字와 蘇軾의 念奴嬌 100字 사이에 위에 든 7字 이외에도 같거나 비슷한 글자가 많다.<sup>(58)</sup> 혹시 柳永의 詞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蘇軾이 柳永의 雙聲子를 생각하면서 念奴嬌를 지은 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해보게 된다. 柳蘇 兩家의 詞는 극히 對照的인 性格을 띠고 있으나 이 雙聲子와 念奴嬌의 限界에서 相通性을 認識하게 된다. 北宋의 詞文學을 研究하는 데 있어 한가지 좋은 示唆를 주는 것이라 하겠다. 參考삼아 柳永이 陶淵明을 言及하며 菊花를 노래한 受恩深도 여기에 걸드려 살펴보기로 한다.

### 受 恩 深<sup>(59)</sup>

雅致裝庭宇。黃花開淡泞。細香明豔盡天與。助秀色瓊餐，向曉自有眞珠露。剛被  
金錢妒。擬買斷秋天，容易獨步。 粉蝶無情蜂已去。要上金尊，惟有詩人曾許。  
待宴賞重陽，恁時盡把芳心吐。陶令輕回顧。免憔悴東籬，冷煙寒雨。

우아한 운치로 집안을 장식하며  
노란 국화 달달하게 피어 있다  
보드라운 향기와 밝게 고을 온통 하늘이 준 것이라  
뉘어난 빛 먼을만 한 것 들풀느라  
새벽녘엔 으레 진주 이슬 생기지만  
곧 金錢菊에게 질투 받는다  
가을철 독차지하여  
혼자서 설치기 병에 하려는 거라

(58) 對照에 편리하도록 蘇軾의 念奴嬌(赤壁懷古)를 적어 두기로 한다 : 大江東去，浪淘盡，千古風流人物。故壘西邊，人道是、三國周郎赤壁。亂石崩雲，驚濤裂岸，捲起千堆雪。江山如畫，一時多少豪傑。遙想公瑾當年，小喬初嫁了，雄姿英發。羽扇綸巾，談笑閒、強虜灰飛煙滅。故國神遊，多情應笑，我早生華髮。人間如夢，一尊還醉江月。

(59) 樂章集 上 大石調에 編入되어 있다.

나비 무정하고 벌은 이미 가버렸다  
 쇠술준에 올라가라고  
 오직 詩人만이 허락했었다  
 重陽節 잔치하며 즐기게 되면  
 그때에 꽃다운 마음 있는대로 토해낸다  
 陶令이 간단하게 되돌아보게  
 동쪽 울타리에 야위지 않고 있다  
 냉냉한 악개와 차가운 비 속에서

이 受恩深은 菊花를 노래한 것이기는 하나 凌霜孤節이니 退隱閑居니 하는 情緒는 전연 露出시키지 않고 黃菊 자체의 좋은 점을 노래하고 後段은 菊酒와 詩人을 연결시키고 淵明에 言及하면서도 輕快한 愉悅이 隨伴하게 썼다. 羈愁나 追憶을 써내던 時期에 지은 것이 아니고 汴京에서 歡樂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던 時期에 이 詞가 지어진 것 같다. 이러한 聲色이 介入되지 않은 蘇詞와 類似한 性格의 詞를 썼던 경우라 하더라도 蘇詞에서 느끼게 되는 豪邁 悠然한 風趣보다는 委婉 幽淡한 筆致가 살려져 있다. 대체적으로 본다면 蘇詞는 詩의 體臭가 강한 편이고 柳詞는 元代에 盛行한 散曲의 情調를 다소간 感知하게 한다. 다만 柳永은 雙聲子나 受恩深 같은 部類의 詞를 짓는데 힘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深入 舉論할 餘地가 별로 없다.

柳永은 詞에 俗語的인 表現을 많이 쓰고 우물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의 詞를 노래했을 정도로 平易했다고 까지 알리어지기는 하지마는, 그는 결국 文士의 氣質에서 완전히 脫皮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詞에서 故事의 援用, 典語의 排比, 對句의 構成 등에 상당한 技倆을 드러 내기도 했던 것이다. 受恩深의 前段 “助秀色堪餐，向曉自有眞珠露”는 陶淵明의 飲酒詩 第6首 “秋菊有佳色，裛露掇其英”的 뜻을 풀어쓴 것이고 後段의 “要上金尊云云”은 同詩의 “汎此忘憂物，遠我遺世情”과 同詩 第5首의 名句 “采菊東籬下，悠然見南山”을 調節해서 엮어낸 것이다. 柳詞에

는 이러한例가 꽤 많다. 柳永은 句中排比의 能手라고 할 수 있다. “霧吟風舞”(黃鶯兒), “奇葩豔卉”“深紅淺白”“千嬌百媚”“畫堂繡閣”, “皓月清風”, “蘭心蕙性”(玉女搖仙佩), “雨迹雲蹤”“雅態妍姿”(雪梅香) 등 樂章集의 첫 3首에서 이미 이정도를 추려내게 된다. 역시 이 3首에서 對句를 찾아보면 “暖律潛催, 幽谷暄和”, “乍出暖煙來, 又趁遊蜂去”, “當上苑柳濃時, 別館花深處”(黃鶯兒), “須信畫堂繡閣, 皓月清風”(玉女搖仙佩), “漁村孤煙裊裊碧, 水村殘葉舞愁紅”(雪梅香) 등이 있다. 이러한 技巧는 사실상 俗語的인 表現과는 距離가 멀다. 그러나 文士趣味에 젖은 社會에서는 이러한 技巧가 오히려 柳詞를 歡迎하게 한 要因의 하나로 되었을지도 모른다.

柳永의 樂章集은 앞으로도 여러가지 方向에서 더욱深入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이 小論이 그러한 研究를 促進시키는 觸媒의 구실을 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多幸한 일이 없을 것이다.